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간호학석사 학위논문

재한 중국동포 중년 여성근로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

201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전공
박 정 희

재한 중국동포 중년 여성근로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이 인 숙

이 논문을 간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전공

박 정 희

박정희의 간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6월

위원장 윤순영 
부위원장 정재원 
위원 이인숙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재한 중국동포 중년 여성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은 재한 중국동포 중년 여성근로자로 2013년 3월 17일부터 4월 21일까지 서울 및 경기지역의 교회 및 산업장을 방문하여 연구 참여 동의를 얻고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자가보고로 자료수집을 하였다. 설문지를 응답한 351명 중 한국 국적 취득자, 불법체류자, 설문지 문항의 일부를 답하지 않은 자, 설문지의 모든 문항을 똑같이 체크한 자 등 77명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274부의 설문지를 본 연구의 최종 분석에 포함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0.0을 이용하여 서술통계, t-test와 ANOVA, Kruskal-Wallis test 등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재한 중국동포 중년 여성근로자의 의사 진단에 의한 1인당 평균 질환수는 $0.7(\pm 1.0)$ 개이며 적어도 1개 이상 진단받은 질환이 있는 대상자는 108명(39.4%)이었다. ICD(International Statistical Classification of Diseases)-10에 의하여 세부 질환을 분류한 결과, 다빈도 질환은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질환, 순환기계질환, 내분비·영양·대사질환, 소화기계 질환 순이었다. 근골격계 증상 유소견율은 69.3%였으며 허리, 다리/발, 목, 손/손목/손가락, 팔/팔꿈치 순이었다. 연령이 많을수록, 한국 체류기간이 5~6년인 경우, 직종이 간병인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
- 2) 재한 중국동포 중년 여성근로자의 28.5%가 우울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19.7%가 가벼운 우울상태, 6.2%가 중한 우울상태, 2.6%가 심한 우울상태였다. 우울수준은 연령이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1일 평균 근무시간이 길수록, 월 평균 급여가 적을수록, 배우자가 없는

경우, 직종이 간병인이나 가정도우미인 대상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 3) 사회적 건강상태는 5점 척도로 측정된 결과 본 대상자의 평균 점수는 $1.75(\pm 0.35)$ 점이었다. 사회적 건강 점수가 전체 대상자의 평균 점수에 2배의 표준편차를 더한 점수인 2.45점보다 클 경우 사회적 건강문제가 있다고 가늠하여 3.3%의 대상자가 사회적 건강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낮고, 비자를 연장하여 한국에 계속 체류하고 싶다고 한 대상자의 사회적 건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좋지 않았다.
- 4) 재한 중국동포 중년 여성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상태는 정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신적 건강상태인 우울수준과 사회적 건강상태는 비교적 강한 정 상관관계($r=.52, p<.001$)를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재한 중국동포 중년 여성근로자들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간병인, 가정도우미 등의 직종을 가진 대상자들의 우울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직종은 중국동포 중년 여성근로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직종이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적절한 우울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 3개 영역을 함께 고려하여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주요어 : 중국동포, 건강상태, 중년 여성, 여성근로자

학 번 : 2010-24029

목 차

국문초록	i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3. 용어 정의	3
II. 문헌고찰	6
1. 중년 여성의 건강특성	6
2.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특성	7
3.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
III. 연구방법	12
1. 연구 설계	12
2. 연구 대상	12
3. 연구 도구	12
4. 자료수집 방법	14
5. 자료분석 방법	15
IV. 연구결과	16
1. 재한 중국동포 중년 여성근로자의 일반적 특성	16
2. 재한 중국동포 중년 여성근로자의 영역별 건강상태	18
1) 대상자의 신체적 건강상태	19
2) 대상자의 정신적 건강상태	22

3) 대상자의 사회적 건강상태	23
3. 제한 중국동포 중년 여성근로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역별 건강상태의 차이	24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적 건강상태의 차이	24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적 건강상태의 차이	26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건강상태의 차이	28
 V. 논의	 30
1. 제한 중국동포 중년 여성근로자의 신체적 건강상태	31
2. 제한 중국동포 중년 여성근로자의 우울	32
3. 제한 중국동포 중년 여성근로자의 사회적 건강상태의 특성	34
4. 연구의 제한점 및 의의	35
1) 연구의 제한점	35
2) 연구의 의의	35
 VI. 결론 및 제언	 37
1. 결론	37
2. 제언	38
 참고문헌	 39
 부 록	 44
 Abstract	 63

List of Tables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17
Table 2. Physical health, depression and social health of the subjects	18
Table 3. Correlations among physical health, depression and social health	19
Table 4. The frequency of diagnosed disease from physician	19
Table 5. Complained Symptoms rate, diagnosed disease rate and treatment rate of the subjects	21
Table 6. The prevalence of musculoskeletal symptoms	22
Table 7. Mental health status of the subjects	23
Table 8. Social health status of the subjects	24
Table 9. Differences of physical health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25
Table 10. Differences of depress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27
Table 11. Differences of social health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29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한국의 경제성장이 세계에 널리 알려짐과 더불어 내국인의 3D업종(difficult, dirty, dangerous) 기피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게 되었고 1991년 정부가 “산업기술연수생”이라는 이름의 연수제도를 시행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본격적으로 한국에 유입되기 시작하였다(김은경, 2003; 김희걸 등, 2005). 2006년 외국인 근로자는 총 255,314명, 2008년에는 437,727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통계청, 2011). 2012년 재한 중국인 근로자는 총 413,000명으로 총 외국인 근로자의 52.2%를 차지했으며 그 중 중국동포는 357,000명(45.1%)이었고 중국동포를 제외한 중국인은 56,000명(7%)이었다. 중국동포의 성별 분포는 남자 201,000명, 여자 156,000명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은 편이다(국가통계포털, 2012). 또한 성, 국적 및 연령별 외국인 현황에 대한 2010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재한 중국동포 근로자 중 40~54세, 즉 중년기 근로자가 가장 많았다(국가통계포털, 2010).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 입국목적은 주로 돈을 벌기 위한 것이었고, 가족과 함께 생활하지 않은 경우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경우보다 더 많으며, 종사업종은 주로 3D업종의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이었다(고재광, 2009; 조결자, 조미선과 박선희, 2008; 홍윤철과 하은희, 1996). 또한, 이들의 1일 평균 근무시간은 11시간 이상이며 1개월에 3일 이상을 쉬기 힘든 근로조건에 있지만 월 평균 급여수준은 122만원정도(안정인, 2011)로 매우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다. 실제로 어느 정도의 잠재적 건강문제를 갖고 있지만 해고의 두려움, 계속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의료비의 부담, 바쁜 업무, 언어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조기에 확인하지 못하는 처지에 있다(김현덕, 2003). 특히 미등록외국인근로자들은 불법체류에서 오는 불안감 및 기타 제약조건으로 병원에 가기는 더욱 어렵고 실제로 간다 할지라도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거액의 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노재철, 2010).

특히 중년기는 신체적으로 점차 쇠퇴현상이 나타나면서 각종 만성질환의 발생 빈도가 높은 시기이다(이향련, 최철자, 박오장, 김영숙과 최경옥, 2010). 중년 여성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역할로 인해 자신의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어, 건강문제 유발에 있어 남성보다 더 높은 이환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변종화, 1994; 이경혜와 장춘자, 1992). 또한 폐경으로 에스트로겐이 결핍되면 폐경증후군을 경험하고, 심맥관계질환, 비만, 골다공증 등 신체 생리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며, 심리사회적으로 자녀의 독립에 따라 급격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신체적 증상뿐만 아니라 우울, 불안, 무가치함 등의 심리 정서적인 증상을 가져오며 다양한 건강문제를 초래하게 된다(이경혜와 장춘자, 1992). 중국동포 중년 여성근로자는 중년의 각종 심리, 생리적 변화로 인한 위협을 동시에 받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로서 내국인보다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고 건강문제를 갖고 있지만 건강상태를 조기에 확인하지 못하는 등 처지에 놓여 있으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강문제를 더 키워 치료하지 못하는 정도까지 이어갈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역의 건강상태를 조사하여 현 상태를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 관련 연구는 대부분 신체적 건강상태, 건강관리실태를 연구주제로 한 것들이었고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논문의 경우 주로 정신건강문제를 다루었으며 의료시설 이용을 포함한 건강행위를 파악하는 목적의 연구가 다수였다(고재광, 2009; 최지원, 이현경과 채덕희, 2011; 황두섭, 2010). 이는 대부분 연령 및 국가제한 없이 모든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연구들이었고, 주로 서비스업(식당도우미, 가정도우미, 간병인 등)과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중국동포 중년 여성근로자들의 건강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한 선행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재한 중국동포 중년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건강상태를 파악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그들의 건강과 관련된 보건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에 거주한 중국동포 중년 여성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재한 중국동포 중년 여성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역의 건강상태를 파악한다.
- 2) 재한 중국동포 중년 여성근로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상태의 차이를 규명한다.

3. 용어 정의

1) 중국동포 근로자

이론적 정의 : 중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고용노동부, 2010).

조작적 정의 : 직업 및 비자의 종류와 관계없이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임금을 목적으로 한국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조선족 근로자를 말한다.

2) 중년 여성

이론적 정의 : 중년기는 생의 주기별 발달단계에서 인생의 전반에서 후반으로 이행되는 시기이며 연령적으로 40~60세로 정의되고 있다(Duvall, 1967). 본 연구에서 중년 여성은 생의 주기별 발달단계에서 성인기와 노년기의 중간시기에 있는 여성을 의미한다.

조작적 정의 : 40세에서 60세까지의 중국동포 여성근로자를 의미한다.

3) 건강상태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나 허약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완전한 안녕 상태를 말한다(WHO, 1998).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측정하였다.

(1) 신체적 건강

이론적 정의 : 신체적 건강은 신체의 생리·신체적 상태라고 정의하였다(John et al. 1981).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질병이 없고 지각된 불편한 증상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조작적 정의 : 국민건강영양조사 제5기 건강설문 조사표 중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를 본 대상자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신체적 건강상태를 측정하였다. 또한,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개발한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KOSHA CODE H-30-2003)를 이용하여 목, 어깨, 팔/팔꿈치, 손/손목/손가락, 허리, 다리/발 등 여섯 부위에 대한 자각증상을 조사하였다.

(2) 정신적 건강

이론적 정의 : 정신적 건강은 심리적 안녕감과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되며 이는 개인이 지각한 생활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감정을 의미한다(Veenhoven, 1991). 본 연구에서는 우울을 측정하였으며, 우울이란 슬픈 감정이 매우 심하고 일상생활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없으며 활동수준이 떨어지며, 비관적이고 자신이 처한 현재와 미래의 상황을 어둡게 보고 사소한 일에도 의사결정을 잘못하여 고립되는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Pfeiffer & Davies, 1972). 본 연구에서 우울이란 기분이 슬프고 자신의 현재나 미래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주변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일상생활에서 피로나 에너지상실을 느끼며 사소한 일에도 의사결정을 잘 못하는 등 복합적인 양상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조작적 정의 : 본 연구에서는 Beck 등(1967)이 개발한 BDI(Beck Depression

Inventory)를 이영호(1993)가 번안한 한국판 BDI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한 우울상태를 의미한다.

(3) 사회적 건강

이론적 정의 : Renne(1974)의 사회적 건강의 기본 개념은 사람이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능하는 것이다(Renne, 197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건강을 그 사람이 속한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적 기능, 즉 사회적 역할을 잘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조작적 정의 : Weissman과 Bothwell(1976)이 개발한 사회적 기능 측정 도구(SAS-SR, Social Adjustment Scale-Self Report)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직원으로서의 역할, 여가생활, 배우자로서의 역할, 부모로서의 역할, 가족단위구성원, 경제적 상태 등의 상태를 말한다.

II. 문헌고찰

1. 중년 여성의 건강특성

여성의 중년기에 대한 정의는 각 문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40~60세의 폐경전후 시기를 의미하며 성인기에서 노년기로 진행되는 단계를 말한다(Duvall, 1967).

중년 여성은 신체·생리적으로 모든 기관의 기능 감퇴, 노화 및 호르몬 변화로 심맥관계 질환, 비만, 골다공증 등 증상을 경험하게 된다(이경혜와 장춘자, 1992). 특히 호르몬의 변화로 폐경증후군을 경험하는데 이는 여성이 경험하는 신체 변화 중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이다. 폐경기의 여성들은 폐경을 생식기간의 종결, 성적매력과 성적 능력의 상실로 여기므로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심한 정신적·심리적 문제들을 유발할 수 있다(석지혜, 홍상욱과 배옥현, 1999).

보건복지부(2006)의 정신건강실태 역학조사에 의하면 여성은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기분 부전 장애를 앓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갱년기 우울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김애순, 2012). 갱년기에 들어서서 자녀의 결혼과 분가, 양친과 사별, 남편과 이별 또는 별거, 질병 등이 계기가 되어 갑자기 우울증에 빠지게 되며 생리가 중단되는 폐경을 계기로 자신이 더 이상 여성다움과 아름다움을 지니지 못하게 된다는 상실감과 좌절감이 우울증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또한 우울증이 심하게 진행되면 질병망상, 불면, 두통, 권태감, 식욕부진, 성욕감퇴, 변비, 환각과 환청 증세가 나타나기도 하며 심지어 자살충동을 겪기도 한다(김영호, 2009).

이외에도 중년 여성은 가족관계, 자녀양육, 건강문제, 자아실현에 대한 갈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생활사건과 갈등들이 이들의 신체기능장애와 심리적 적응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건강관리 측면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하지만 중년 여성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역할로 정작 자신의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어, 건강문제 유발에 있어 남성보다 더 높은

이환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변종화, 1994; 이경혜와 장춘자, 1992).

중년기 여성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요인에 다각적으로 노출된 간호대상자이다. 특히 중년 여성근로자인 경우 그들의 건강상태를 미리 파악하고 이에 따른 건강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특성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부분 임금을 목적으로 입국하였고, 열악한 업무환경 및 과중한 업무량 등 각종 요인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취약해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조결자 등, 2008; 홍윤철과 하은희, 1996). 또한 건강보험이 없거나 의료기관 접근의 어려움으로 상태가 더 악화된 후에 병원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다. 이들 중 불법체류 근로자들은 건강보험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보험 체계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그들은 무료진료소 등 비공식적인 조직에 의존하게 된다. 반면, 합법적인 근로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가입자격이 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정부, 간병인 등)는 건강문제가 있을 시 높은 의료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워 이들 역시 민간 차원의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구정희, 2006). 무엇보다 질병을 미리 예방하며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의 건강과 관련하여 외국인 근로자, 특히 중국동포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신체적 측면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신체적 건강문제에 중점을 두고 분석한 김정원(2008)의 연구결과에서는 피로도, 근골격계, 호흡계, 현재 만성질환 유무, 소화기계, 신경계 순으로 나타났고(김정원, 2008), 교회나 모임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가기입식으로 설문 조사한 홍윤철과 하은희(1996)의 연구에서는 소화기계, 피부질환, 두통, 근골격계의 순으로 조사되

었다(홍윤철과 하은희, 1996).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소에서 자료를 수집한 정혜선 등(2008)의 연구에서는 여성근로자의 경우 소화기계질환(31.4%)과 근골격계질환(25.7%)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정혜선 등, 2008). 이상 연구를 비롯한 많은 선행연구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호소하는 신체적 건강문제는 근골격계, 소화기계의 문제였다. 중국동포 여성근로자의 신체부위별 직업 관련성 근골격계 증상 유소견율은 허리, 다리, 어깨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김선정, 이현경과 안현미, 2010), 김정원(2008)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외국인 근로자 중 특히 중국동포 근로자의 건강상태는 7.96(\pm 4.61)점으로 외국인 근로자 평균 점수 5.78(\pm 4.23)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타 국적 근로자에 비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결과였다(김정원, 2008).

정신적 측면에서, 중국동포의 스트레스나 우울을 다룬 선행연구들이 있었다. 김정원의 연구에서는 평균 연령이 35.64세인 110명의 13개국 외국인 근로자들의 우울과 생활사건(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김정원, 2008). 이인선의 연구에서는 중국동포 근로자가 지각하는 우울수준은 총점 4점 기준에서 평균 2.40점으로 외국인 근로자들 중 우울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이인선, 2004). 반면 중국동포 근로자의 우울 증상자율은 9.5%로 타 국적근로자(32.1%)에 비해 뚜렷이 낮은 결과를 보인 연구결과도 있었다(이선용 등, 2009). 스트레스를 다룬 연구들 중 김옥수(2003)의 연구에서는 중국동포 근로자의 스트레스가 10점 만점에서 5.6점으로 중간 정도의 스트레스를 나타냈다(김옥수, 2003). 2008년 102명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재한 중국동포가 지각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최현, 2008). 반면, 김선정 등(2010)의 연구에서는 중국동포 근로자들이 문화적응 과정에서 경험하는 일반적인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5점 척도에서 2.34점으로 중간 이하의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김선정 등, 2010). 이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 특히 중국동포 근로자들의 정신건강을 측정하는 변수로는 스트레스, 문화적응 스트레스, 우울 등이 있었으며 우울,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은 서로 반대되는 결과들이 있었다.

중국동포 근로자는 한국인과 혈통을 같이 하는 한민족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민족에 차원에서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 즉 '방문취업제'를 통해 5년간 유효한 복수 사증을 발급 받고 국내에서 거의 모든 업종에 취업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인과 같은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기 때문에 가사노동 등 친밀성을 기본으로 하는 서비스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능숙하다는 점이 오히려 중국동포에 대한 한국인의 편견과 차별을 쉽게 감지할 수 있고, 대우에 있어서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보다 높은 기대수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감이 클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윤인진, 2010).

기존의 중국동포 근로자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그들의 정신적 건강을 측정하는 변수는 주로 스트레스 및 우울이었다. 재한 중국동포 중년 여성근로자들은 각종 스트레스가 심화되어 우울 및 갱년기 우울 등이 나타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신적 건강지표로 우울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측면에서, 이주여성근로자들은 주로 모국인 친구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같은 이주근로자라고 해도 다른 나라 근로자들과의 접촉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한국 내 사회적 네트워크의 경우, 40대가 50대 이상 연령대보다 사회적 네트워크 정도가 높았다. 출신국가별로 비교해 보면 필리핀이 가장 높은 사회적 네트워크 수준을 보였고, 반면 러시아는 다른 출신국가 여성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체류상태별로 불법체류 여성이 합법체류 여성보다 사회적 네트워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영란, 2007).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근로자는 고향이 아닌 타지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주요한 인간관계가 직장 및 가정에서 이루어지며 여러 가지 장애요인으로 직장, 부부, 자녀와의 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적 기능이 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에서는 건강상태를 측정할 시 이 부분을 함께 다룬 것이 거의 없었다.

3.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998년~2004년 7차 년도를 거쳐 한국노동패널 조사자료를 중심으로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우혜경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별거/이혼/사별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월 평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불건강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우혜경, 2007).

2012년 이윤석의 연구에서는 이혼, 사별한 중년층은 기혼인 중년층에 비해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나 자녀, 가까운 친구 등은 중년의 건강행위 및 생활습관 등을 통제해 줄 수 있으므로 결국 그들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하였다(이윤석, 2012). 즉, 가족과 함께 생활하지 않을 경우 가족이 조언이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지므로 현재 가족과의 동거여부는 중년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볼 수 있다.

2009년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김승대(2009)의 연구에서는 체류기간, 체류형태, 종교 등 요인에 따라 건강상태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 6개월~1년, 1년~2년, 2년 이상 등 4개 그룹에서 1년~2년, 6개월~1년, 2년 이상, 6개월 미만인 순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고 체류형태별로는 산업연수생, 고용허가제로 체류하는 집단 순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종교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신앙생활을 통한 힘과 종교단체를 통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건강상태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김승대, 2009). 조현태(2008)의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연구 자료에 의하면 합법체류 근로자의 건강검진 수진율이 불법체류자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조현태, 2008). 이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불법체류 근로자들이 건강문제가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긴 근무시간은 근로자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어 근로자에게 건강문제가 발생할 경우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더 나아가서 노동으로 돈을 벌

수 없을 수도 있게 된다. 또한 월급에서 매달 저축하거나 본국 가족에게 송금하는 금액의 비율이 높을 경우 실제로 쓸 수 있는 생활비가 적어 건강생활 및 의료비용을 아끼려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들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중국동포 중년 여성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조사함에 있어서 일반적 특성으로 연령, 결혼상태, 종교, 교육수준, 소유비자, 한국 체류기간, 비자만료 후 계속 체류의사, 가족과 동거형태, 거주형태, 직종, 1일 평균 근무시간, 월 평균 급여, 월급에서 매달 평균 저축 또는 중국으로 송금하는 금액의 비율, 중국 및 한국 내 건강보험 유무 등 변수들을 포함시켰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재한 중국동포 중년 여성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연구목적을 이해하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만 40~60세 사이의 한국 거주 중국동포 중년 여성근로자이며, 아래 표본비율을 이미 알고 있는 한 모집단의 비율과 비교할 때 필요한 표본 수를 구하는 공식에 유의수준 .05, 모집단의 비율(p) 25.7%(정혜선 등(2008)의 연구의 근골격계 증상의 비율 참조), 비율의 허용오차 .05로 하였을 때 예상 대상자수는 293명이므로 응답이 부실한 설문지 탈락율 약 20%를 고려하여 350명을 선정하였다.

$$N = \frac{z_{1-\alpha/2}^2 pq}{e^2}$$

3. 연구 도구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으로 연령, 결혼상태, 종교, 교육수준, 소유비자, 한국 체류기간, 비자만료 후 계속 체류의사, 가족동거형태, 거주형태, 직종, 1일 평균 근무시간, 월 평균 급여, 월급에서 매달 평균 저축 또는 중국으로 송금하는 금액의 비율, 중국 및 한국 내 건강보험 유무 등 변수들을 포함시켰다.

2) 건강상태

(1) 신체적 건강

국민건강영양조사 제5기 건강설문 조사표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표를 본 대상자에 맞게 수정하여 신체적 건강상태를 측정하였다. 즉, 설문 중 20개 질환에서 정신적 건강영역에 속하는 우울에 대한 1개 문항을 제외하여 총 19개 질환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였고, 문항별 구체적인 치료방법과 같은 개별적인 질문은 제외하였다. 또한 19개 질환 이외에 대상자가 앓고 있는 기타 질환에 대하여 기입할 수 있도록 한 문항을 별도로 추가하였다. 대상자가 근로자라는 특성상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개발한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KOSHA CODE H-30-2003)를 이용하여 목, 어깨, 팔/팔꿈치, 손/손목/손가락, 허리, 다리/발 등 여섯 부위에 대한 자각증상을 조사하였다.

(2) 우울

본 연구에서는 Beck 등(1967)이 개발한 BDI(Beck Depression Inventory)를 이영호(1993)가 번안한 한국판 BDI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21문항으로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생리적 증후군 등 21개 영역을 포함하고 있고 점수 범위는 0점에서 63점까지 있을 수 있다. 21개 문항 중 1번을 선택할 경우 0점, 2번 1점, 3번 2점, 4번 3점으로 책정하여 각 문항의 점수를 합한다. 우울수준은 0~9점은 우울하지 않은 상태, 10~15점은 가벼운 우울상태, 16~23점은 중한 우울상태, 24~63점은 심한 우울상태로 구분된다. 이영호(1993)의 수정문항을 대학생 125명에게 실시한 결과 α 계수는 .98, 반분신뢰도 계수는 .91이었고 일반인 256명에게 실시한 결과 α 계수는 .84였다. 본 연구에서 한국판 BDI척도의 Cronbach's α 는 .85였다.

(3) 사회적 건강

본 연구에서는 Weissman과 Bothwell(1976)에 의해 개발된 SAS-SR

(Social Adjustment Scale-Self Report) 도구를 본 연구의 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원 도구는 총 54개 문항으로 다양한 역할적 관계 측면의 사회적 기능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또한 사회적 적응을 유도하기 위한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54개 문항으로 일(고용자, 주부, 또는 학생으로서의 역할: 질문 1~18), 사회적/여가활동(질문 19~29), 친지관계(질문 30~37), 배우자로서의 역할(질문 38~46), 부모로서의 역할(질문 47~50), 가족단위구성원(질문 51~53), 경제적 상태(질문 54) 등 하위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5점 척도이며 높은 점수는 사회적 건강상태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 점수화 방법에는 각 영역의 평균 점수를 내는 것과 각 항목 점수를 더한 것을 체크한 항목의 수로 나누어 점수를 표시하는 것 등 2가지 종류가 있다. 자가보고 버전은 질문지를 완성하는데 15~20분 정도 걸린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 는 .86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가 외국인 근로자라는 것을 고려하여 주부, 학생, 친지관계에 대한 문항 20개와 이성 파트너와의 데이트에 관한 문항 2개를 제외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Cronbach's α 는 .86이었다.

4.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 실시 전 연구대상자 선정 조건에 맞는 재한 중국동포 중년 여성 근로자 7명을 대상으로 2013년 3월 17일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가 어렵다고 지적한 설문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본 조사는 2013년 3월 18일에서 4월 21일까지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에 대한 모든 과정은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연구대상자보호심의위원회의 승인 후 진행되었다.

서울시에 소재한 중국동포들이 주로 다니는 동작구 C교회, 구로구 H교회와 Z교회, 동대문구 Z교회, 영등포구 B교회와 S교회를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연구의 취지 및 설문지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설문 조사 허락을 받은

후 교회의 프로그램에 방해되지 않는 시간에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현장에서 중국동포 중년 여성근로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 익명성 보장을 설명한 후 구두로 동의를 표시한 대상자에게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국문해독이 어렵거나 글이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회에서 대량으로 설문조사 시 중국동포 출신인 훈련된 연구보조원 7명이 함께 조사하였다. 설문지는 자가보고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연구보조원은 대상자가 도움을 요청할 경우 문항에 대하여 읽어주고 설문지 작성에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주중에는 연구자 및 연구보조원 1인이 지인을 통하여 서울 및 경기지역의 중국동포 중년 여성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 종료 후 대상자에게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설문지 응답자는 총 351명이었으며 그 중 한국 국적 취득자, 불법체류자, 설문지 문항 일부를 빠뜨린 자, 설문지의 모든 문항을 똑같이 체크한 자 77명을 제외하여 총 274부를 본 연구의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들은 SPSS 2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구체적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산출하여 제시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영역별 건강상태는 항목별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상태의 차이는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다. ANOVA로 통계처리할 때 등분산 가정이 기각되는 경우 Welch test 및 Kruskal-Wallis test를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재한 중국동포 중년 여성근로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는 평균 연령이 50.7세이고 51~55세가 83명(30.3%)으로 가장 많았다. 결혼상태는 기혼이 215명(78.5%), 이혼 또는 사별 56명(20.4%), 미혼 3명(1.1%)이었다. 종교가 있는 대상자는 128명(46.7%)이었으며 대부분 기독교였다. 교육수준은 고졸 140명(51.3%), 중졸 95명(34.8%)이었고 초졸, 대졸은 각각 10%미만이었다. 한국 체류기간은 24개월 이내가 59명(23.3%)이었고 25~48개월 71명(28.1%), 49~72개월 74명(29.2%), 73개월 이상이 49명(19.4%)이었다. ‘비자 만료 후 연장하여 계속 한국에 체류하고 싶습니까?’에 대한 응답은 ‘예’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234명(87%)으로 ‘아니오’라고 응답한 대상자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대상자 중 배우자 또는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는 98명(35.8%)이었고 아닌 경우가 176명(64.2%)이었다. 거주형태는 월세 183명(66.8%), 기타(일하는 곳, 교회, 친척집 등) 56명(20.4%), 전세 35명(12.8%) 순이었다.

직종은 식당도우미 113명(41.2%), 가정도우미 70명(25.5%), 제조업 46명(16.8%) 순이었다. 1일 평균 근무시간은 11.7시간이었고 근무시간이 10~12시간인 대상자가 187명(72.2%)으로 가장 많았으며 근무시간이 12시간 이상이 되는 대상자도 48명(18.5%)이나 되었다. 월급은 평균 151만원이었고 150~170만원이 150명(57.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대상자들의 월급에서 월 평균 저축 또는 중국으로 송금 금액의 평균 비율은 약 47.7%정도였다.

대상자의 본국(중국) 및 한국에서의 건강보험 가입상태는 중국에서 가입한 대상자가 108명(39.6%), 한국에서는 111명(40.7%)으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74)

Variables	Categories	n(%)	Mean±SD
Age (years)	40~45	61(22.3)	50.7±5.9
	46~50	66(24.1)	
	51~55	83(30.3)	
	56~60	64(23.4)	
Marital status	Single	3(1.1)	
	Married	215(78.5)	
	Divorced	31(11.3)	
	Bereaved	25(9.1)	
Religion	Yes	128(46.7)	
	No	146(53.3)	
Level of education	Elementary school graduate	23(8.4)	
	Middle school graduate	95(34.8)	
	High school graduate	140(51.3)	
	College graduate	15(5.5)	
Length of staying in Korea (months)	≤24	59(23.3)	55.3±43.0
	25~48	71(28.1)	
	49~72	74(29.2)	
	≥73	49(19.4)	
Wish to stay in Korea	Yes	234(87.0)	
	No	35(13.0)	
Living with family	Yes	98(35.8)	
	No	176(64.2)	
Boarding type	Monthly rent	183(66.8)	
	Biyearly rent	35(12.8)	
	Others	56(20.4)	
Occupation	Restaurant employee	113(41.2)	
	House keeper	70(25.5)	
	Manufacturing industry	46(16.8)	
	Caregiver	13(4.7)	
	Others ^a	32(11.7)	
Daily working hours	<10	24(9.3)	11.7±4.4
	10~12	187(72.2)	
	>12	48(18.5)	
Monthly income (₩10,000)	<150	43(16.5)	151.0±44.7
	150~170	150(57.7)	
	>170	67(25.8)	
Saving rate/month ^b (%)	<35	45(19.2)	47.7±21.0
	35~65	142(60.7)	
	>65	47(20.1)	
Health insurance	Have in China	108(39.6)	
	Not have in China	165(60.4)	
	Have in Korea	111(40.7)	
	Not have in Korea	162(59.3)	

Note. Missing data excluded.

^a Others(n): unemployment(12), construction(3), clothing company(2), cleaning(2), travel agency(1), an answer of 'Others' was selected, however, specific occupation was not indicated(12)

^b Saving rate/month = (Income saved/month)÷(Income/month)

2. 재한 중국동포 중년 여성근로자의 영역별 건강상태

신체적 건강상태는 의사 진단에 의한 질환이 있는 경우를 건강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하였고, 우울점수가 10점 및 그 이상인 경우를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하였으며, 사회적 건강상태는 2.45점(Mean+ 2SD의 값) 이상인 경우를 건강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하였다. 대상자 중 현재 앓고 있는 질환에서 적어도 1개 이상 의사 진단에 의한 질환이 있는 대상자는 108명(39.4%)이었다(Table 2). 또한 78명(28.5%)이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건강상태는 9명(3.3%)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건강문제와 우울을 동시에 갖고 있는 대상자는 14.6%, 신체적 건강문제와 사회적 건강문제를 동시에 갖고 있는 대상자는 1.8%, 우울과 사회적 건강문제를 동시에 갖고 있는 대상자는 2.9%, 3개 영역의 건강문제를 모두 갖고 있는 대상자는 1.8%였다.

Table 2. Physical health, depression and social health of the subjects
(N=274)

Categories	Problem	
	Yes n(%)	No n(%)
Physical health ^a	108(39.4)	166(60.6)
Depression	78(28.5)	196(71.5)
Social Health	9(3.3)	265(96.7)
Physical health ^a + Depression	40(14.6)	234(85.4)
Physical health ^a + Social Health	5(1.8)	269(98.2)
Depression + Social Health	8(2.9)	266(97.1)
Physical health ^a + Depression + Social Health	5(1.8)	269(98.2)

^a Diagnosed from physician.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상태는 정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즉, 대상자의 신체적 건강상태와 우울수준은 낮은 정 상관관계($r=.24, p<.001$), 신체적 건강상태와 사회적 건강상태도 낮은 정

상관관계($r=.16$, $p=.01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상자의 우울수준과 사회적 건강상태는 비교적 강한 정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52$, $p<.001$).

Table 3. Correlations among physical health, depression and social health (N=274)

	Physical health ^a	Depression	Social health
Physical health ^a	1		
Depression	.24**	1	
Social health	.15*	.52**	1

^a Diagnosed from physician.

* $p<.05$, ** $p<.001$

1) 대상자의 신체적 건강상태

(1) 현재 앓고 있는 신체적 질환 유병률

대상자의 현재 앓고 있는 질환에서 의사에게 진단받은 1인당 평균 질환수는 $0.7(\pm 1.0)$ 개였다. 1개 이상 진단받은 질환이 있는 대상자는 108명 (39.4%)으로, 1개 질환이 있는 대상자 23.0%, 2개 질환이 있는 대상자 10.6%, 3개 질환이 있는 대상자 2.9% 순이었다(Table 4).

Table 4. The frequency of diagnosed disease from physician (N=274)

No. of diagnosed disease ^a	n (%)
0	166(60.6)
1	63(23.0)
2	29(10.6)
3	8(2.9)
4	7(2.6)
7	1(0.4)
Total	274(100%)

^a Diagnosed from physician.

대상자가 현재 앓고 있는 질환을 ICD(International Statistical Classification of Diseases)-10에 의하여 분류한 결과, 다빈도 질환은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질환, 순환기계질환, 내분비·영양·대사질환, 소화기계질환 순이었다.

세부 질환 중 대상자의 증상 호소율은 골관절염 21.9%, 고혈압 12.0%, 류마티스성관절염 8.4%, 소화기계질환 7.3%, 이상지혈증 4.7% 순이었다 (Table 5). 그 중 진단받은 질환의 유병률은 골관절염 15.3%, 고혈압 10.9%, 류마티스성관절염 6.2%, 소화기계질환 6.6%, 이상지혈증 4.4% 순이었다. 그러나 증상을 호소한 대상자수가 10명이상인 세부 질환의 치료율은 고혈압(84.8%), 이상지혈증(61.5%), 소화기계질환(6.6%) 순이었다.

Table 5. Complained symptom rate, diagnosed disease rate and treatment rate of the subjects (N=274)

Disease	Complained symptom (rate) ^a	Diagnosed disease (rate) ^b	Treatment rate ^c
	n(%)	n(%)	%
• Diseases of the musculoskeletal system and connective tissue	93(33.9)	67(24.5)	43.0
Osteoarthritis	60(21.9)	42(15.3)	38.3
Rheumatoid arthritis	23(8.4)	17(6.2)	47.8
Spinal disease	8(2.9)	6(2.2)	50.0
Others ^d : Osteoporosis(2/2)			
• Diseases of the circulatory system	43(15.7)	40(14.6)	79.1
Hypertension	33(12.0)	30(10.9)	84.8
Others ^d : Myocardial infarction(4/4), Angina pectoris(3/3), Hypotension(2/2), Stroke(1/1)			
• Endocrine, nutritional and metabolic diseases	28(10.2)	27(9.9)	57.1
Dyslipidemia	13(4.7)	12(4.4)	61.5
Thyroid disease	9(3.3)	9(3.3)	44.4
Diabetes mellitus	6(2.2)	6(2.2)	66.7
• Diseases of the digestive system	20(7.3)	18(6.6)	60.0
Gastrointestinal disease	20(7.3)	18(6.6)	60.0
• Diseases of the respiratory system	10(3.6)	8(2.9)	60.0
Asthma	8(2.9)	7(2.6)	62.5
Others ^d : Rhinitis(1/1), Common cold(1/0)			
• Diseases of the skin and subcutaneous tissue	8(2.9)	5(1.8)	50.0
Atopic dermatitis	7(2.6)	4(1.5)	57.1
Others ^d : Dry skin dermatitis(1/1)			
• Diseases of the genitourinary system	6(2.2)	4(1.5)	50.0
Others ^d : Renal failure(4/2), Kidney stone(1/1), Cystitis(1/1)			
• Neoplasms	3(1.1)	3(1.1)	33.3
Others ^d : Cancer/Tumor(3/3)			
• Certain infectious and parasitic disease	3(1.1)	3(1.1)	33.3
Others ^d : Hepatitis B(2/2), Hepatitis C(1/1)			
• Diseases of the blood and blood-forming organs and certain disorders involving the immune mechanism	2(0.7)	2(0.7)	0.0
Others ^d : Anemia(2/2)			
• Diseases of the nervous system	1(0.4)	1(0.4)	100.0
Others ^d : Insomnia(1/1)			

Note. Multiple responses.

^a Complained symptom rate = (Subjects who complained symptoms)÷(Total subjects)

^b Diagnosed disease rate = (Subjects diagnosed of disease)÷(Total subjects)

^c Treatment rate = (Subjects receiving treatment)÷(Subjects who complained symptoms)

^d Others(Complained symptom/Diagnosed disease) : Less than 5 people of the total subjects are complaining of the symptom.

(2) 대상자의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증상 유소견율

지난 1년 동안 목, 어깨, 팔/팔꿈치, 손/손목/손가락, 허리, 다리/발 등 여섯 가지 신체 부위 중에서 어느 한곳이라도 소견이 있는 대상자는 190명 (69.3%)이었다(Table 6). 하부 영역별로 어깨부위의 증상을 호소한 대상자 (56.1%)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허리(49.2%), 다리/발(36%), 목(36%), 손/손목/손가락(31.7%), 팔/팔꿈치(29.1%) 순이었다.

Table 6. The prevalence of musculoskeletal symptoms (N=274)

Aching part	Musculoskeletal symptom	
		n (%)
Total	No	84(30.7)
	Yes ^a	190(69.3)
Shoulder		106(56.1)
Waist		93(49.2)
Leg/foot		68(36.0)
Neck		68(36.0)
Hand/wrist/finger		60(31.7)
Arm/elbow		55(29.1)

^a Multiple responses.

2) 대상자의 정신적 건강상태

대상자의 정신적 건강상태를 측정하기 위하여 우울을 측정하였다. Beck의 우울척도에 의하여 조사대상자의 우울수준을 우울하지 않은 상태, 가벼운 우울상태, 중한 우울상태, 심한 우울상태 4가지 수준으로 나누었다. 그 중 우울하지 않은 상태에 속하는 대상자가 71.5%로 가장 많았고, 가벼운 우울 상태 19.7%, 중한 우울 상태 6.2%, 심한 우울 상태 2.6% 순이었다 (Table 7).

Table 7. Mental health status of the subjects

(N=274)

Score	Depression level	n	%
0~9	No depression	196	71.5
≥10	Depression	78	28.5
10~15	Mild-to-moderate depression	54	19.7
16~23	Moderate-to-severe depression	17	6.2
24~63	Severe depression	7	2.6

3) 대상자의 사회적 건강상태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사회적 건강상태는 직원으로서의 역할, 여가시간, 배우자로서의 역할, 어머니로서의 역할, 가족단위구성원내의 역할 및 경제적 상태 등 6개 영역이 포함된다. 응답한 항목의 점수를 1번에서 5번까지 1점에서 5점으로 점수화 하였고 일부 문항에서 6번(해당사항이 없음)을 응답하였을 경우 그 한 문항을 영역별 평균 및 전체 사회적 건강 점수를 구하는데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3.3%에서 사회적 건강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사회적 건강상태의 평균 점수는 1.75(±0.35)점이었다. 이는 전체 문항을 중립적인 응답(3번)을 선택하였을 때 얻어지는 평균 점수 3점보다 낮은 점수로서 대상자의 사회적 건강상태가 비교적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위 영역은 여가시간 2.03(±0.49)점, 경제적 상태 2.02(±0.94)점, 배우자로서의 역할 1.93(±0.57)점 순으로 전체적 사회적 건강의 평균 수준 1.75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 하위 영역의 사회적 건강상태가 평균 이하로 좋지 않음을 의미한다(Table 8).

Table 8. Social health status of the subjects

(N=274)

	No. of items	Mean±SD	Min	Max
Play the role of worker	6	1.30±0.35	0	2.67
Spare time	9	2.03±0.49	1	4.20
Play the role of spouse	6 ^a or 9 ^b	1.93±0.57	1	3.50
Play the role of mother	4	1.45±0.54	1	3.50
Family unit	3	1.66±0.66	0	4.00
Financial	1	2.02±0.94	1	5.00
Total	29 ^a or 32 ^b	1.75±0.35	1	2.80

Note. Missing data excluded. Range : 1~5

^a When the subjects not have spouse in Korea.

^b When the subjects have spouse in Korea.

3. 재한 중국동포 중년 여성근로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역별 건강상태의 차이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적 건강상태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적 건강상태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 앓고 있는 질환 중 의사에게 진단받은 질환수의 평균의 차이를 측정하였다. 대상자의 신체적 건강은 연령, 한국 체류기간, 직종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9).

연령, 한국 체류기간 및 직종은 그룹간 질환수 평균이 Levene의 등분산 가정을 만족하지 않아 Welch test로 통계처리를 하였고 사후검정은 Tamhane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신체적 건강문제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F=4.42, p<.05). 한국 체류기간은 5~6년 사이에 있는 대상자의 신체적 건강상태가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2.83, p<.05). 직종은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간병인의 신체적 건강상태가 가장 좋지 않았으며 이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대상자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2.74, p<.05).

일반적 특성의 기타 항목에 따라 대상자의 신체적 건강상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9. Differences of physical health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74)

Variables	Categories	Total	No. of disease ^e	t/F	p
		n	Mean±SD		
Age (years)	40~45	61	0.4±0.7 ^c	4.42	.005 ^b
	46~50	66	0.6±1.0 ^{cd}		
	51~55	83	0.7±0.9 ^{cd}		
	56~60	64	1.0±1.4 ^d		
Marital status	Married	215	0.7±1.1	0.42	.674
	Single, Divorced, Bereaved	59	0.6±0.8		
Level of education	≤Middle school graduate	118	0.7±1.1	0.95	.344
	≥High school graduate	156	0.6±1.0		
Length of staying in Korea (months)	≤24	59	0.4±0.7 ^c	2.83	.041 ^b
	25~48	71	0.7±1.3 ^{cd}		
	49~72	74	0.8±1.1 ^d		
	≥73	49	0.5±0.8 ^{cd}		
Families living together	Yes	98	0.6±0.9	-0.21	.833
	No	176	0.7±1.1		
Occupation	Restaurant employee	113	0.6±1.0 ^{cd}	2.74	.037 ^b
	House keeper	70	0.9±1.3 ^{cd}		
	Manufacturing industry	46	0.4±0.7 ^c		
	Caregiver	13	1.1±1.3 ^d		
	Others ^f	32	0.8±1.0 ^{cd}		
Daily working hours	<10	24	0.7±1.0	4.47	.106 ^a
	10~12	187	0.5±0.8		
	>12	48	1.1±1.5		
Monthly income (₩10,000)	<150	43	0.6±0.8	0.01	.989
	150~170	150	0.7±1.1		
	>170	67	0.6±1.0		

Note. Missing data excluded.

^a Kruskal-Wallis test

^b Welch test

^{c,d} Tamhane의 사후검정으로 통계 처리함(a<ab<b)

^e Diagnosed from physician.

^f Others(n) : unemployment(12), construction(3), clothing company(2), cleaning(2), travel agency(1), an answer of 'Others' was selected, however, specific occupation was not indicated(12)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적 건강상태의 차이

대상자의 우울수준은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직종, 1일 평균 근무시간, 월 평균 급여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10).

연령에 따라 우울수준의 차이를 보기 위하여 Kruskal-Wallis test를 시행하였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우울수준이 더 높은 양상을 보였는데, 특히 56~60세인 대상자가 40~45세인 대상자보다 우울수준이 더 높았다.

직종, 1일 평균 근무시간, 월 평균 급여는 그룹간 우울 평균이 Levene의 등분산 가정을 만족하지 않아 Welch test로 통계처리를 하였고 사후분석으로 Tamhane을 시행하였다. 직종은 Welch test 결과($F=4.39,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사후분석 결과 요양시설 간병인과 가정도우미의 우울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제조업 종사자들의 우울수준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1일 평균 근무시간은 Welch test 결과($F=9.61, p<.05$)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사후분석 결과 1일 평균 근무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그룹이 그 이하인 그룹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월 평균 급여는 Welch test 결과($F=3.21,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사후분석 결과 월 평균 급여가 150만원 이하인 그룹이 이상인 그룹보다 더 우울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미혼, 이혼, 사망)가 배우자가 있는 경우(결혼)보다 우울수준이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가 평균 우울점수 8.1(± 7.2)점, 고졸 이상이 6.1(± 5.8)점으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우울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55, p<.05$).

대상자의 종교, 한국 체류기간, 한국에 계속 체류의사, 가족동거형태, 거주형태, 월급에서 저축 및 중국으로 송금하는 평균 금액의 비율, 한국 및 중국 내 보험유무에 따라 대상자의 우울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10. Differences of depress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74)

Variables	Categories	n	Mean±SD	t/F	p
Age (years)	40~45	61	5.7±6.3 ^c	8.22	.042 ^a
	46~50	66	6.7±6.1 ^{cd}		
	51~55	83	6.5±5.4 ^{cd}		
	56~60	64	9.1±7.9 ^d		
Marital status	Married	215	6.5±6.2	-2.19	.029
	Single, Divorced, Bereaved	59	8.6±7.5		
Religion	Yes	128	7.8±7.1	1.91	.058
	No	146	6.3±5.9		
Level of education	≤Middle school graduate	118	8.1±7.2	2.55	.011
	≥High school graduate	156	6.1±5.8		
Length of staying in Korea (months)	≤24	59	7.1±7.8	0.05	.987
	25~48	71	6.7±6.5		
	49~72	74	6.9±6.1		
	≥73	49	7.0±5.6		
Wish to stay in Korea	Yes	234	6.8±6.4	-1.08	.282
	No	35	8.1±7.2		
Families living together	Yes	98	6.3±5.1	-1.48	.141
	No	176	7.4±7.2		
Boarding type	Monthly rent	183	7.0±6.5	0.43	.651
	Biyearly rent	35	6.3±6.6		
	Others	56	7.6±6.4		
Occupation	Restaurant employee	113	6.4±5.4 ^{ef}	4.39	.004 ^b
	House keeper	70	8.3±6.5 ^f		
	Manufacturing industry	46	4.5±4.7 ^e		
	Caregiver	13	10.9±10.5 ^f		
	Others ^g	32	8.4±8.8 ^{ef}		
Daily working hours	<10	24	4.3±4.0 ^e	9.61	<.001 ^b
	10~12	187	6.2±5.8 ^e		
	>12	48	10.9±7.8 ^f		
Monthly income (₩10,000)	<150	43	9.4±7.9 ^e	3.21	.045 ^b
	150~170	150	6.7±5.8 ^{ef}		
	>170	67	5.8±6.3 ^f		
Saving rate/month ^h (%)	<35	45	6.7±6.3	0.26	.772
	35~65	142	6.6±6.5		
	>65	47	7.3±6.1		
Health insurance	Have in China	108	7.0±6.4	0.14	.892
	Not have in China	165	6.9±6.6		
	Have in Korea	111	7.5±6.7	1.20	.232
	Not have in Korea	162	6.6±6.4		

Note. Missing data excluded.

^a Kruskal-Wallis test

^b Welch test

^{c,d} Bonferroni의 사후검정으로 통계처리함(a<ab<b)

^{e,f} Tamhane의 사후검정으로 통계처리함(c<cd<d)

^g Others(n): unemployment(12), construction(3), clothing company(2), cleaning(2), travel agency(1), an answer of 'Others' was selected, however, specific occupation was not indicated(12)

^h Saving rate/month = (Income saved/month)÷(Income/month)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건강상태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건강상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교육수준, 비자만료 후 한국에 계속 체류의사에 따라 사회적 건강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Table 11).

교육수준이 중졸 이하인 대상자의 사회적 건강이 $1.8(\pm 0.4)$ 점으로 고졸 이상인 경우 $1.7(\pm 0.3)$ 점보다 더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p < .001$), 비자를 연장하여 한국에 계속 체류하고 싶다고 한 대상자들이 $1.8(\pm 0.4)$ 점으로 비자를 연장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대상자들보다 사회적 건강이 더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5$).

대상자의 연령, 결혼상태, 종교, 한국 체류기간, 가족동거형태, 거주형태, 직종, 1일 평균 근무시간, 월 평균 급여에 따라 사회적 건강상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11. Differences of social health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74)

Variables	Categories	n	Mean±SD	t/F	p
Age (years)	40~45	61	1.8±0.4	0.55	.649
	46~50	66	1.8±0.4		
	51~55	83	1.7±0.4		
	56~60	64	1.8±0.3		
Marital status	Married	215	1.8±0.4	-0.24	.813
	Single, Divorced, Bereaved	59	1.8±0.3		
Religion	Yes	128	1.8±0.4	0.61	.542
	No	146	1.7±0.3		
Level of education	≤Middle school graduate	118	1.8±0.4	2.89	.004
	≥High school graduate	156	1.7±0.3		
Length of staying in Korea (months)	≤24	59	1.8±0.4	0.32	.957 ^a
	25~48	71	1.7±0.3		
	49~72	74	1.7±0.4		
	≥73	49	1.8±0.3		
Wish to stay in Korea	Yes	234	1.8±0.4	2.34	.02
	No	35	1.6±0.4		
Families living together	Yes	98	1.7±0.4	-0.27	.787
	No	176	1.8±0.4		
Boarding type	Monthly rent	183	1.8±0.4	0.05	.948
	Biyearly rent	35	1.7±0.3		
	Others	56	1.8±0.4		
Occupation	Restaurant employee	113	1.7±0.4	1.20	.312
	House keeper	70	1.8±0.4		
	Manufacturing industry	46	1.7±0.3		
	Caregiver	13	1.7±0.3		
	Others ^c	32	1.9±0.4		
Daily working hours	<10	24	1.7±0.4	0.51	.600
	10~12	187	1.7±0.3		
	>12	48	1.8±0.4		
Monthly income (₩10,000)	<150	43	1.8±0.4	1.72	.181
	150~170	150	1.7±0.4		
	>170	67	1.7±0.3		
Saving rate /month ^b (%)	<35	45	1.8±0.4	1.67	.190
	35~65	142	1.7±0.4		
	>65	47	1.7±0.3		

Note. Missing data excluded.

^a Kruskal-Wallis test

^b Saving rate/month = (Income saved/month) ÷ (Income/month)

^c Others(n): unemployment(12), construction(3), clothing company(2), cleaning(2), travel agency(1), an answer of 'Others' was selected, however, specific occupation was not indicated(12)

V. 논의

본 연구는 재한 중국동포 중년 여성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3개의 영역의 건강에 대하여 평가하고 일반성 특성에 따른 차이를 알아봄으로써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동포 중년 여성근로자들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그들의 건강과 관련된 보건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서 거주형태는 월세가 66.8%, 무상(교회, 친구/친척의 집, 일하는 곳 등)이 20.4%로 나타났으며 이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하성규와 고성열(2005)의 월세 38.7%, 무상 37.9%라는 연구결과와 비교했을 때 숙박여건이 많이 좋아졌음을 알 수 있다(하성규와 고성열, 2006). 직종은 식당도우미, 가정도우미, 제조업 순으로 많았는데 이는 중국동포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김선정 등(2010)의 서비스업이 가장 많았다는 결과와 일치하다(김선정 등, 2010). 1일 평균 근무시간은 72.2%의 대상자가 10~12시간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이는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한 조결자 등(2008)의 연구에서 71.7%가 1일 평균 근무시간이 11~12시간이라는 연구 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했다(조결자 등, 2008). 대상자 중 근무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도 48명(18.5%) 있었는데 이는 직종이 가정도우미와 간병인인 대상자들은 입주하여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1일 평균 근무시간을 24시간이라고 기입하여 실제로 일하는 시간보다 더 많이 평가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월급을 150만원 이상을 받는 대상자가 83.5%로 정혜선 등(2008)의 연구에서 여성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월급이 120만원 이상이 9.3%라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으며 140만원 이상이 64.5%인 김승대(2009)의 연구결과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또한 2012년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서비스종사자 평균 임금 124.3만원 및 단순노무종사자 평균 임금 123만원보다 높은 월급수준이었다(고용노동부, 2012).

본 연구의 목적에 맞추어 재한 중국동포 중년 여성근로자들의 건강상태를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1. 재한 중국동포 중년 여성근로자의 신체적 건강상태

본 연구에서 대상자가 진단받은 질환 중 가장 많은 질환은 골관절염, 고혈압, 류마티스성관절염, 소화기계질환, 이상지혈증 순으로 이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정혜선 등(2008)의 근골격계질환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는 결과와 일치했고 또한 김정원(2008)의 연구결과에서 근골격계, 호흡계, 만성질환유무, 소화기계 순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증상의 유병률은 69.3%였고 하부영역별로 어깨, 허리, 다리/발, 목 순이었는데 김선정 등(2010)의 연구에서는 유병률이 71.3%에 허리, 다리/발, 어깨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한국인 중년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중년 여성들이 주로 호소하는 갱년기 증상 종류로 ‘신경이 예민하다’, ‘팔다리가 쭈신다’, ‘이유 없이 심한 피로를 느낀다’ 등 이었다(유은광, 김명희와 김태경, 1999; 최란과 박재순, 1997). 대상자의 갱년기 증상의 연령 분포는 55~59세와 40~44세가 비교적 갱년기 증상을 많이 호소한다는 연구결과(권숙희 등, 1996; 최란과 박재순, 1997)가 있는가 하면 47~53세 사이에서 가장 동등 호소 빈도가 높았으며 40~46세, 54~60세와 유의한 차이를 보인 연구결과(고효정 등, 1999)도 있는 것으로 40~60세 사이에서 다양했다. 본 연구결과에서 연구 대상자가 40~60세 사이의 중년 여성이므로 갱년기 증상으로 요통, 무릎관절통, 만성질환의 발생빈도가 높다는 선행연구를 고려해 볼 때 고혈압, 관절염 등 증상이 높게 평가되었을 수 있다(권숙희 등, 1996; 이향련 등, 2009). 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5기 2차년도 국민건강통계결과 한국 중년 여성의 고혈압 유병률은 40~49세가 10.8%, 50~59세가

29.7%였고, 고혈압 치료율은 40~49세가 47.2%, 50~59세가 67%였다 (국민건강통계, 2011). 본 연구결과에서는 대상자의 진단받은 고혈압 유병률(10.9%)은 대상자의 평균 연령이 50.7세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한국 중년 여성의 유병률보다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고혈압 치료율(84.8%)은 한국 중년 여성보다 높았다. 이 외에 이상지혈증, 당뇨병 등 기타 만성질환 유병률도 한국 중년 여성이 중국동포 중년 여성근로자보다 높은 반면 치료율은 낮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 대상자의 만성질환 이환율은 진단받은 질환의 이환율을 보였고, 만성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약요인으로 질환을 조기 진단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실제 유병률은 본 연구결과보다 더 높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치료율은 구체적 치료방법에 대하여 응답하는 문항이 없었기에 개인이 한국 입국 시 가져온 약품이나 약국에서 비처방약을 사서 복용하고 증상 조절만으로 자신이 질환 치료를 하고 있다고 인식하여 높게 평가되었을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높은 치료율은 자신의 건강문제를 치료하려는 의도를 나타내는 현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접근하기 편리한 의료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는 그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여 자신의 건강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고 질환이 더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재한 중국동포 중년 여성근로자의 우울

본 연구의 대상자 중 28.5%가 경증이상 우울한 상태였다. 이는 한국인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동일한 우울측정도구를 사용한 고효정 등(1999)의 연구에서는 59.7%, 석지혜 등(1999)의 연구에서는 87.2%, 유은광 등(1999)의 연구에서는 50.5%가 경증이상 우울한 상태라는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고효정 등, 1999; 석지혜 등, 1999; 유은광 등, 1999). 한국 중년 여성

을 대상으로 한 이상 3개 연구는 대상자가 직업이 없는 경우가 각각 52.96%, 45.7%, 60%였고 직업이 없거나 월수입이 적은 대상자가 우울수준이 높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고려해 볼 때 한국인 중년 여성의 우울 비율이 더욱 높게 나타났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이홍자와 김춘미, 2010; 장혜경과 차보경, 2003; 전소자 등, 2004). 또한, 본 연구에서 우울한 상태에 있는 대상자의 비율이 한국인 중년 여성보다 적은 이유는 중국동포 중년 여성 근로자는 한국에서 돈을 벌려면 자존심을 버려야 한다는 믿음(이혜경, 2004)을 가지고 있어서, 이 믿음이 긍정적인 작용을 하였을 수도 있다.

제한 중국동포 중년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우울을 측정 한 선행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중국국적 근로자(대부분 중국동포임)를 대상으로 한 이선웅 등(2009)의 연구결과에서는 우울증상자율은 9.5%로 본 연구결과보다 낮은 비율이었다(이선웅 등, 2009).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수준의 차이를 볼 때 대상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1일 평균 근무시간이 길수록, 월 평균 급여가 적을수록, 배우자가 없는 경우, 직종이 간병인이나 가정도우미인 대상자에서 우울수준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우울수준이 더 높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했다(박금자 등, 2002; 전소자 등, 2004; 최현주, 2006). 또한 여자일수록, 근무시간이 길어질수록, 비제조업에 종사할수록, 수면이 불규칙할수록 정신적 건강수준이 좋지 않음을 예측할 수 있다는 최현주(2006)의 연구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하다. 중국동포 여성근로자는 30~40대이면 식당 등의 일을 찾으며, 40~50대이거나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가정부 일을 찾는 경우가 많았다는 선행연구(이혜경, 2004)와 비교해 볼 때 교육수준이 낮고 배우자가 없는 50대 가정부나 간병인의 정신적 건강이 가장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그들의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간병인 교육센터나 간병인을 채용하는 기관에서 주기적으로 중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3. 재한 중국동포 중년 여성근로자의 사회적 건강상태의 특성

대상자의 특성상 돈을 벌기 위하여 한국 입국하였고, 근무시간이 11시간 이상이 약 73%로 수면시간까지 제외하면 여유로 활용할 시간이 너무 적은 실정이다. 따라서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여가생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대인관계 면의 사회적 기능이 떨어졌을 수 있다고 예상을 하였으나 본 연구 결과에서는 총점 5점(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건강이 좋지 않음)에서 $1.75(\pm 0.35)$ 점으로 사회적 건강상태가 비교적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은 여가시간, 경제적 상태, 배우자로서의 역할 순으로 전체 사회적 건강의 평균 수준 1.75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어머니로서의 역할갈등 점수가 가장 높고 다음은 주부로서, 아내로서, 직장에서의 역할 갈등 순이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최란과 박재순, 1997). 이 결과는 대상자가 한국에 입국한 목적이 경제적인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이었고 1일 평균 근무시간이 길기 때문일 것 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통신이 발달하여 자녀와 남편과의 의사소통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영상전화 또는 전화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서로 만날 수 없지만 가족들 간에 의사소통 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며 가족들과의 마찰이 함께 있는 경우보다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점수가 낮게 나타났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4. 연구의 제한점 및 의의

1) 연구의 제한점

(1) 본 연구의 대상자는 편의 표본 추출방법에 의하여 선정되었고 또한 대상자를 많이 접할 수 있는 교회라는 장소에서 설문조사를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전체 제한 중국동포 중년 여성근로자로 일반화 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대상자의 특성상 1일 근무시간이 길어서 접근하기 어렵고 교회라는 장소가 꼭 종교생활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 유리한 정보교환의 장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목적으로 가기도 하므로 교회에서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다.

(2) 본 연구의 대상자는 중년 여성근로자로서 만성질환 및 근골격계 증상, 우울 등 건강상태는 외국인 근로자이기 때문뿐만 아니라 폐경기 증상 때문일 수도 있다. 따라서 본 대상자의 각 영역별 건강상태는 대상자가 실제로 지각하고 있는 건강상태라는 것에 의미를 둔다.

2)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전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니고 그 중에서도 중국동포, 중년, 여성근로자 등 여러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 그들의 건강상태를 다차원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여 보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로부터 제한 중국동포 중년 여성근로자들은 신체적 측면에서 다른 국가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근골격계질환, 소화기계질환이 많은 것이 확인되었고 한국인 중년 여성과 비슷하게 관절통증 등 근

골격계 증상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대부분 대상자들의 정신건강은 우울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중국동포 중년 여성근로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직종인 간병인과 가정도우미를 하고 있는 대상자는 기타 직종 대상자들보다 우울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그들의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기적으로 그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기하였다.

이에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국동포 중년 여성근로자들의 건강증진 및 건강노화를 위한 국가적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프로그램 및 새로운 연구를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재한 중국동포 중년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설문자료는 2013년 3월 17일부터 4월 21일까지 서울 및 경기지역의 중국동포 중년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수집하였으며 총 274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들이 현재 앓고 있는 질환에서 적어도 1가지 이상 의사 진단에 의한 질환을 가진 대상자는 108명(39.4%)이었고 근골격계질환, 고혈압, 소화기계질환, 이상지혈증, 갑상샘질환 순으로 기타 외국인 근로자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증상의 유소견율은 69.3%였다. 연령, 한국 체류기간, 직종에 따라 신체적 건강상태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2) 대상자 중 28.5%가 우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1일 평균 근무시간이 길수록, 월 평균 수입이 적을수록, 배우자가 없는 경우, 중국동포 중년 여성근로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직종인 간병인이나 가정도우미에 종사하는 대상자에서 우울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따라서 그들의 우울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예방하고 및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
- 3) 사회적 건강상태는 평균 1.75(± 0.35)점, 사회적 건강문제가 있는 대상자가 9명(3.3%)이었다. 따라서 대상자의 사회적 건강상태는 비교적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은 여가시간, 경제적 상태, 배우자로

서의 역할 순으로 전체 사회적 건강의 평균 수준 보다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4)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상태는 정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우울수준과 사회적 건강은 비교적 강한 정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재한 중국동포 중년 여성근로자들의 건강의 3개 영역 중 특히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중재 가능한 세부 요인들을 파악하여 지역사회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진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상태는 상관계수가 있으므로 건강의 3개 영역을 함께 고려하여 중재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2. 제언

- 1)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과 관련하여 일반적 특성 외에 기타 건강 관련 특성을 고찰하고 각 영역별 세부적인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연구를 실시할 것을 제언한다.
- 2) 가정도우미 및 간병인이라는 직종에 종사하는 대상자가 기타 직종에 종사하는 대상자보다 우울수준이 더 높다고 나온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그들의 우울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세부적으로 파악하는 연구를 진행할 것을 제언한다. 또한 우울을 미리 예방하거나 우울수준을 완화시킬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할 것을 제언한다.

참고문헌

- 고재광 (2009).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강관리실태*.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구.
- 고효정, 권영숙, 김명애, 박경민, 박정숙, 박청자 등 (1999). 중년기 여성의 건강문제 실태조사. *한국모자보건학회지*, 3(2), 257-266.
- 구정희 (2006).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외국인이주노동자의 의료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김선정, 이현경과 안현미 (2010). 조선족 근로자의 직업 관련성 사회 심리적 요인, 문화적응 요인과 직업 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의 관계. *한국산업간호학회지*, 19(1), 28-40.
- 김승대 (2009). 외국인 근로자들의 일상적인 건강장애에 미치는 영향-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9(9), 268-277.
- 김영란 (2007). 이주여성노동자의 사회문화적 적응에 관한 경험적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46(1), 43-95.
- 김영호 (2009). 갱년기 다스리기. *서림문화사*. P248, 252.
- 김옥수 (2003). 조선족 근로자의 스트레스와 건강지각에 관한 연구. *간호과학*, 15(1), 10-16.
- 김은경 (2003). *외국인노동자의 근로환경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북.
- 김애순 (2012). 장·노년 심리학. *시그마프레스*. P 296.(재인용)
- 김숙영, 김희정과 전홍진 (2005). 제조업 여성근로자의 근골격계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산업간호학회지*, 14(1), 5-15.
- 김정원 (2008).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상태와 의료서비스 이용*.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김현덕 (2003). *외국인노동자 복지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김희걸, 현혜진, 김용규, 김현리, 정혜선, 김정희 등 (2005). 유해화학물질 취급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 *노동부 연구용역 보고서*.
- 권숙희, 김영자, 문길남, 김인순, 박금자, 박춘화 등 (1996). 중년 여성의 갱년기 증상과 우울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2(2), 270-28.
- 노재철 (2010). 미등록외국인근로자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노동법농촌*, 18(-), 37-90.
- 박금자, 이지현, 김미옥, 방부경, 윤수정과 최은주 (2002). 중년여성의 지각된 생활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및 우울의 관계.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3(2), 354-362.
- 변종화 (1994).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전략 및 사업추진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6.
- 석지혜, 홍상옥과 배옥현 (1999). 중년기 여성의 스트레스 생활사건 및 자아개념과 우울과의 관계. *새마을지역개발연구*, 24(-), 99-117.
- 안정인 (2011). *외국인근로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관련요인*. 인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경남.
- 우혜경 (2007). *임금근로자의 소득수준과 노동조건에 따른 건강형평성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유은광, 김명희와 김태경 (1999). 중년여성의 건강증진행위와 갱년기 증상, 우울과의 관계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9(2), 225-237.
- 윤인진 (2010). 이주여성의 일자리와 가족문제 및 대책. *제15회 여성주간 기념 정책세미나자료*.
- 이경혜와 장춘자 (1992). 중년기 여성의 폐경 경험. *모자간호학회지*, 2(1), 70-86.
- 이선웅, 김규상, 김태균, 류향우, 이미영, 원용립 등 (2009). 경기지역 일부 이주노동자들의 직무스트레스와 우울 증상의 상관성. *대한산업의학회지*, 21(1), 76-86.
- 이영호 (1993). *귀인양식, 생활사건, 사건귀인 및 무망감과 우울의 관계*: 공

- 변량 구조모형을 통한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울.
- 이윤석 (2012). 혼인상태에 따른 중년남녀의 건강행위와 건강상태. *한국인구학*, 35(2), 103-131.
- 이인선 (2004).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외국인 노동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이향련, 스테파니아, 조영임, 최은영, 박정애와 박영미 (2009). 한국 이주노동자의 건강관련 특성. *한국산업간호학회지*, 18(1), 5-13.
- 이향련, 최철자, 박오장, 김영숙과 최경옥 (Eds.). (2010). *성인간호학I: 수문사*.
- 이홍자와 김춘미 (2010). 중년여성의 폐경 증상과 우울.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1(4), 429-438.
- 이혜경 (2004). 한국내 외국인 가정부 고용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학*, 27(2), 121-153.
- 장혜경과 차보경 (2003). 갱년기 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간호학회지*, 33(7), 972-980.
- 전소자, 김희경, 이선미와 김수아 (2004). 중년여성의 우울 영향요인.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5(2), 266-276.
- 정혜선, 김용규, 김현리, 이꽃메, 송연이, 김정희 등 (2008). 성별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실태 및 직업적 특성. *한국산업간호학회지*, 17(2), 126-137.
- 조결자, 조미선과 박선희 (2008). 재한 중국동포의 건강증진행위와 관련 요인.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5(3), 153-165.
- 조현태 (2008).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강 실태 조사 연구. *한국산업간호학회지*, 17(2), 224-229.
- 최란과 박재순 (1997). 일부 생산직 중년 여성근로자의 역할갈등과 갱년기 증상과의 관계. *한국산업간호학회지*, 6(2), 136-143.
- 최지원, 이현경과 채덕희 (2011). 외국인 이주자 건강관련 연구 동향; 최근 10년간(2000-2009) 연구에 대한 고찰.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8(3), 113-128.

최현 (2008). *한국체류 중국동포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최현주 (2006). *국내 외국인근로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보건관리학과 박사학위논문, 서울.

하성규와 고성열 (2006).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24, 9-31.

홍윤철과 하은희 (1996).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실태조사. *대한산업의학회지*, 8(1), 1-14.

황두섭 (2010). *외국인근로자의 의료기관이용 실태분석 및 활성화방안*.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고용노동부 (2010.7.5시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Retrieved October 18, 2011, from

<http://www.law.go.kr/DRF/MDRFLawService.jsp?OC=molab&ID=9542>

고용노동부 (2012).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 고용노동부.

국가통계포털 (2012). 국적/성별 취업자. Retrieved January 15, 2013, from

http://kosis.kr/gen_etl/start.jsp?orgId=101&tblId=DT_1FB0006&conn_path=I3&path=

국가통계포털 (2010). 성, 현재 국적 및 연령별 외국인-전국. Retrieved September 16, 2011, from

<http://kosis.kr/wnsearch/totalSearch.jsp>

국민건강영양조사 (2011). 국민건강영양조사 제5기 건강설문 조사표(성인). Retrieved April 30, 2012, from

<http://knhanes.cdc.go.kr/knhanes/index.do>

국민건강통계 (2011). 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5기 2차년도. 보건복지

- 부, 질병관리본부.
- 통계청 (2011). 외국인근로자(계). Retrieved August 29, 2011,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 안전보건공단. 근골격계질환 증상설문조사. Retrieved February 20, 2013, from <http://www.kosha.or.kr/content.do?menuId=1751>
- ICD-10 Version: 2010. Retrieved June 14, 2013, from <http://apps.who.int/classifications/icd10/browse/2010/en>
- Duvall, E. M. (1967). Family Development. Philadelphia, Lippincott.
- Renne, K. S. (1974). Measurement of Social Health in a General Population Survey. *Social Science Research*, 3(1), 25-44.
- Veenhoven R (1991). "is happiness relative?". *Social Indicators Research*, 24, 1-34.
- World Health Organization (1951). Technical Report Series No. 31. Geneva: WHO.
- Weissman, M. M., & Bothwell, S. (1976). Assessment of social adjustment by patient self-report.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33, 1111-1115.
- John E. W. J, Robert H. B.M, Allyson R. D & Kathleen N. L. (1981). Choosing Measures of Health Status for Individuals in General Population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71(6), 620-625.
- Pfeiffer, E., & Davies, C. I. C. (1972). Determinants of sexual behaviour in middle and old age.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20, 151-158.

부 록

연구 참여 동의서

연구제목: 재한 중국동포 중년 여성근로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재한 중국동포 중년 여성근로자들에게 설문지를 통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조사연구로, 연구결과는 국가적 차원에서 그들의 건강과 관련된 보건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한국에 계시는 중국동포 중년 여성근로자(만40세~60세)이신 분들이 설문지에 자가보고하는 형식으로 참여하실 것이며,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될 것입니다. 또한 설문 도중 언제든지 그만두실 수 있습니다. 만일 그만두고 싶으시다면 연구자에게 즉시 말씀하여 주십시오.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은 거의 없으며 설문지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20~30분이며 한 번 측정으로 완료됩니다. 본 연구에 시간을 내어 참여해주신 답례로 소정의 선물을 드릴 것입니다.

설문지에 응답하신 참여자의 이름이나 개인 정보는 일체 유출되지 않을 것이며, 수집된 모든 정보는 연구자만이 알 수 있도록 처리하여 잠금 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하고 연구 논문이 인쇄자료로 발표된 후에는 분쇄 폐기 처리될 것입니다.

이 연구 참여 동의서는 연구자 보관용과 참여자 보관용 2부이며, 연구참여에 동의하신 날짜, 성명 및 서명에 표기하여 주시고, '참여자 보관용'은 여러분에게 제공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에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은 이 연구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며, 이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인은 자발적으로 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성 명 : _____ (서명) 날 짜: ____ / ____ / ____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연구대상자보호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연구자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박정희 석사수료생 주소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제2연구동 406호 연락번호 : 02-740-8468
--

I. 일반적 특성

다음 각 문항에 V표나 정확한 답을 해주십시오.

1. 연령 만__세
2. 결혼상태:
①미혼 ②결혼 ③이혼 ④사별
3. 종교
①기독교 ②불교 ③천주교 ④무교(종교 없음) ⑤기타____
4. 교육 정도:
①초등학교 졸업 ②중졸 ③고졸 ④대졸 이상
5. 비자 있으십니까? (종류 예: H2, F4등)
①있음 (종류:) ②없음
6. 한국에 오신지 얼마나 오래 되셨습니까? ____년
7. 비자만료 후 연장하여 계속 한국에 있고 싶으십니까?
①예 ②아니오
8. 가족관계 및 동거형태(남편, 아들, 딸 등)

본인과의 관계	현재 거주 국가	현재 동거하십니까?	1주일에 평균 며칠 동거하십니까?
	①중국 ②한국 ③ 기타____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①중국 ②한국 ③ 기타____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①중국 ②한국 ③ 기타____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①중국 ②한국 ③ 기타____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①중국 ②한국 ③ 기타____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9. 거주형태: ① 회사 기숙사 ②월세 ③전세 ④기타____
10. 직업 종류:
①식당도우미 ②가정도우미 ③제조업 ④건축업 ⑤요양시설 ⑥기타____
11. 1일 평균 근무시간: ____시간
12. 월 평균 급여(월급): ____만원
13. 월 평균 저축 및 중국으로 송금(생활비 등으로 쓰지 않는 돈): ____만원
14. 건강/의료보험:
(1) 중국: ①있음 ②없음
(2) 한국: ①있음 ②없음

II. 신체적 건강

1) 다음은 귀하의 신체적 건강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A. 순환기계에 대한 질문

	현재 앓고 있음	의사에게 진단을 받았음	진단 받은 시기		현재 치료하고 있습니까?
			한국 입국 전	한국 입국 후	
1. 고혈압 (高血壓)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 이상지혈증 (高脂血症)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 뇌졸중/중풍 (腦卒中)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4. 심근경색증 (心肌梗塞)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5. 협심증 (心絞痛)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B. 근골격계에 대한 질문

	현재 앓고 있음	의사에게 진단을 받았음	진단 받은 시기		현재 치료하고 있습니까?
			한국 입국 전	한국 입국 후	
6. 골관절염 (關節炎)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7. 류마티스성관절염 (类风湿性關節炎)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C. 호흡기계에 대한 질문

	현재 앓고 있음	의사에게 진단을 받았음	진단 받은 시기		현재 치료하고 있습니까?
			한국 입국 전	한국 입국 후	
8. 폐결핵 (肺結核)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9. 천식 (哮喘)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D. 내분비 대사성 질환에 대한 질문

	현재 앓고 있음	의사에게 진단을 받았음	진단 받은 시기		현재 치료하고 있습니까?
			한국 입국 전	한국 입국 후	
10. 당뇨병(糖尿病)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1. 갑상샘질환(甲状腺疾病)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E. 암에 대한 질문

	현재 앓고 있음	의사에게 진단을 받았음	진단 받은 시기		현재 치료하고 있습니까?
			한국 입국 전	한국 입국 후	
12.()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3.()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4.()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참고	①위암(胃癌) ②간암(肝癌) ③대장암(大肠癌) ④유방암(乳房癌) ⑤자궁경부암(宫颈癌) ⑥폐암(肺癌) ⑦갑상샘암(甲状腺癌) ⑧기타()				

F. 기타 질환에 대한 질문

	현재 앓고 있음	의사에게 진단을 받았음	진단 받은 시기		현재 치료하고 있습니까?
			한국 입국 전	한국 입국 후	
15. 아토피 피부염(特应性皮炎)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6. 신부전(肾衰)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7. B형간염(乙肝)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8. C형간염(丙肝)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9. 간경변증(肝硬化)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G. 이상 A-F에서 제기된 질환 외에 자신이 앓고 있는 질환이 있습니까?()

①있다. ②없다.

①번을 응답했을 경우 아래 표를 작성해 주십시오.

질병명	현재 앓고 있음	의사에게 진단을 받았음	진단 받은 시기		현재 치료하고 있습니까?
			한국 입국 전	한국 입국 후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 다음은 당신의 근골격계 증상과약을 위한 질문입니다. 한 문항도 빠뜨리지 말고 해당사항을 하나만 골라서 “V”해 주십시오.

※지난 1년동안 목, 어깨, 팔/팔꿈치, 손/손가락, 허리, 다리/발 중 어느 한 부위에서라도 귀하의 작업과 관련하여 통증이나 불편함(통증, 쭈시는 느낌, 뻣뻣함, 화끈거리는 느낌, 무감각 혹은 찌릿찌릿함 등)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① 아니오 ② 예

(“예” 라고 답하신 분은 다음 표의 통증부위에 표시(√)하시고 해당 통증부위의 아래로 내려가며 해당사항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응답 가능)

통증 부위	목 ()	어깨 ()	팔/뱀꿈치 ()	손/손목/손가락 ()	허리 ()	다리/발 ()
1. 통증의 구체적 부위는?		<input type="checkbox"/> 오른쪽 <input type="checkbox"/> 왼쪽 <input type="checkbox"/> 양쪽 모두	<input type="checkbox"/> 오른쪽 <input type="checkbox"/> 왼쪽 <input type="checkbox"/> 양쪽 모두	<input type="checkbox"/> 오른쪽 <input type="checkbox"/> 왼쪽 <input type="checkbox"/> 양쪽 모두		<input type="checkbox"/> 오른쪽 <input type="checkbox"/> 왼쪽 <input type="checkbox"/> 양쪽 모두
2.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통증 기간은 얼마 동안 지속됩니까?	<input type="checkbox"/> 1일 미만 <input type="checkbox"/> 1일 - 1주일 미만 <input type="checkbox"/> 1주일 - 1달 미만 <input type="checkbox"/> 1달 - 6개월 미만 <input type="checkbox"/> 6개월 이상	<input type="checkbox"/> 1일 미만 <input type="checkbox"/> 1일 - 1주일 미만 <input type="checkbox"/> 1주일 - 1달 미만 <input type="checkbox"/> 1달 - 6개월 미만 <input type="checkbox"/> 6개월 이상	<input type="checkbox"/> 1일 미만 <input type="checkbox"/> 1일 - 1주일 미만 <input type="checkbox"/> 1주일 - 1달 미만 <input type="checkbox"/> 1달 - 6개월 미만 <input type="checkbox"/> 6개월 이상	<input type="checkbox"/> 1일 미만 <input type="checkbox"/> 1일 - 1주일 미만 <input type="checkbox"/> 1주일 - 1달 미만 <input type="checkbox"/> 1달 - 6개월 미만 <input type="checkbox"/> 6개월 이상	<input type="checkbox"/> 1일 미만 <input type="checkbox"/> 1일 - 1주일 미만 <input type="checkbox"/> 1주일 - 1달 미만 <input type="checkbox"/> 1달 - 6개월 미만 <input type="checkbox"/> 6개월 이상	<input type="checkbox"/> 1일 미만 <input type="checkbox"/> 1일 - 1주일 미만 <input type="checkbox"/> 1주일 - 1달 미만 <input type="checkbox"/> 1달 - 6개월 미만 <input type="checkbox"/> 6개월 이상
3. 그때의 아픈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보기 참조)	<input type="checkbox"/> 약한 통증 <input type="checkbox"/> 중간 통증 <input type="checkbox"/> 심한 통증 <input type="checkbox"/> 매우 심한 통증	<input type="checkbox"/> 약한 통증 <input type="checkbox"/> 중간 통증 <input type="checkbox"/> 심한 통증 <input type="checkbox"/> 매우 심한 통증	<input type="checkbox"/> 약한 통증 <input type="checkbox"/> 중간 통증 <input type="checkbox"/> 심한 통증 <input type="checkbox"/> 매우 심한 통증	<input type="checkbox"/> 약한 통증 <input type="checkbox"/> 중간 통증 <input type="checkbox"/> 심한 통증 <input type="checkbox"/> 매우 심한 통증	<input type="checkbox"/> 약한 통증 <input type="checkbox"/> 중간 통증 <input type="checkbox"/> 심한 통증 <input type="checkbox"/> 매우 심한 통증	<input type="checkbox"/> 약한 통증 <input type="checkbox"/> 중간 통증 <input type="checkbox"/> 심한 통증 <input type="checkbox"/> 매우 심한 통증
	<보기>	약한 통증 : 약간 불편한 정도이나 작업에 열중할 때는 못 느낀다 중간 통증 : 작업 중 통증이 있으나 귀가 후 휴식을 취하면 괜찮다 심한 통증 : 작업 중 통증이 비교적 심하고 귀가 후에도 통증이 계속된다 매우 심한 통증 : 통증 때문에 작업은 물론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렵다				
4. <u>지난 1년 동안</u> 이러한 증상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6개월에 1번 <input type="checkbox"/> 2-3달에 1번 <input type="checkbox"/> 1달에 1번 <input type="checkbox"/> 1주일에 1번 <input type="checkbox"/> 매일	<input type="checkbox"/> 6개월에 1번 <input type="checkbox"/> 2-3달에 1번 <input type="checkbox"/> 1달에 1번 <input type="checkbox"/> 1주일에 1번 <input type="checkbox"/> 매일	<input type="checkbox"/> 6개월에 1번 <input type="checkbox"/> 2-3달에 1번 <input type="checkbox"/> 1달에 1번 <input type="checkbox"/> 1주일에 1번 <input type="checkbox"/> 매일	<input type="checkbox"/> 6개월에 1번 <input type="checkbox"/> 2-3달에 1번 <input type="checkbox"/> 1달에 1번 <input type="checkbox"/> 1주일에 1번 <input type="checkbox"/> 매일	<input type="checkbox"/> 6개월에 1번 <input type="checkbox"/> 2-3달에 1번 <input type="checkbox"/> 1달에 1번 <input type="checkbox"/> 1주일에 1번 <input type="checkbox"/> 매일	<input type="checkbox"/> 6개월에 1번 <input type="checkbox"/> 2-3달에 1번 <input type="checkbox"/> 1달에 1번 <input type="checkbox"/> 1주일에 1번 <input type="checkbox"/> 매일
5. <u>지난 1주일 동안</u> 에도 이러한 증상이 있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예
6. <u>지난 1년 동안</u> 이러한 통증으로 인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병원·한의원 치료 <input type="checkbox"/> 약국치료 <input type="checkbox"/> 병가, 산재 <input type="checkbox"/> 작업 전환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기타 ()	<input type="checkbox"/> 병원·한의원 치료 <input type="checkbox"/> 약국치료 <input type="checkbox"/> 병가, 산재 <input type="checkbox"/> 작업 전환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기타 ()	<input type="checkbox"/> 병원·한의원 치료 <input type="checkbox"/> 약국치료 <input type="checkbox"/> 병가, 산재 <input type="checkbox"/> 작업 전환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기타 ()	<input type="checkbox"/> 병원·한의원 치료 <input type="checkbox"/> 약국치료 <input type="checkbox"/> 병가, 산재 <input type="checkbox"/> 작업 전환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기타 ()	<input type="checkbox"/> 병원·한의원 치료 <input type="checkbox"/> 약국치료 <input type="checkbox"/> 병가, 산재 <input type="checkbox"/> 작업 전환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기타 ()	<input type="checkbox"/> 병원·한의원 치료 <input type="checkbox"/> 약국치료 <input type="checkbox"/> 병가, 산재 <input type="checkbox"/> 작업 전환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기타 ()

Ⅲ. 정신적 건강

다음은 귀하의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요즈음(오늘을 포함하여 지난 일주일 동안)의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문항 1개를 선택하여 동그라미(○)표시를 해주십시오.

하나도 빠지 말고 반드시 한 문장만을 선택하시되,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1) 나는 슬프지 않다.
2) 나는 슬프다.
3) 나는 항상 슬프고 불행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4) 나는 너무나 슬프고 불행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2. 1) 나는 앞날에 대해서 별로 낙심하지 않는다.
2) 나는 앞날에 대해서 용기가 나지 않는다.
3) 나는 앞날에 대해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낀다.
4) 나의 앞날은 아주 절망적이고 나아질 가망이 없다고 느낀다.

3. 1) 나는 실패자라고 느끼지 않는다.
2) 나는 보통사람들보다 더 많이 실패한 것 같다.
3) 내가 살아온 과거를 되돌아보면, 실패투성이인 것 같다.
4) 나는 인간으로서 완전한 실패자라고 느낀다.

4. 1) 나는 전과같이 일상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2) 나의 일상생활은 예전처럼 즐겁지 않다.
3) 나는 요즘에는 어떤 것에서도 별로 만족을 얻지 못한다.
4) 나는 모든 것이 다 불만스럽고 싫증난다.

5. 1) 나는 특별히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2) 나는 죄책감을 느낄 때가 많다.
 3) 나는 죄책감을 느낄 때가 아주 많다.
 4) 나는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6. 1) 나는 벌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2) 나는 어쩌면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든다.
 3) 나는 벌을 받을 것 같다.
 4) 나는 지금 벌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7. 1) 나는 나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는다.
 2) 나는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있다.
 3) 나는 나 자신에게 화가 난다.
 4) 나는 나 자신을 증오했다.

8. 1)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것 같지는 않다.
 2) 나는 나의 약점이나 실수에 대해서 나 자신을 탓하는 편이다.
 3) 내가 한 일이 잘못되었을 때는 언제나 나를 탓한다.
 4)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들은 다 내 탓이다.

9. 1) 나는 자살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2) 나는 자살할 생각을 가끔 하지만, 실제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3)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자주 든다.
 4) 나는 기회만 있으면 자살하겠다.

10. 1) 나는 평소보다 더 울지는 않는다.
 2) 나는 전보다 더 많이 운다.
 3) 나는 요즈음 항상 운다.
 4) 나는 전에는 울고 싶을 때 울 수 있었지만, 요즈음은 울래야 울 기력조차 없다.

11. 1) 나는 요즘 평소보다 더 짜증을 내는 편은 아니다.
 2) 나는 전보다 더 쉽게 짜증이 나고 귀찮아진다.
 3) 나는 요즘 항상 짜증을 내고 있다.
 4) 전에는 짜증스럽던 일에 요즘은 너무 지쳐서 짜증조차 나지 않는다.
12. 1)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고 있다.
 2) 나는 전보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3)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어졌다.
 4)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없어졌다.
13. 1) 나는 평소처럼 결정을 잘 내린다.
 2) 나는 결정을 미루는 때가 전보다 더 많다.
 3) 나는 전에 비해 결정을 내리는 데에 더 큰 어려움을 느낀다.
 4) 나는 더 이상 아무 결정도 내릴 수가 없다.
14. 1) 나는 전보다 내 모습이 더 나빠졌다고 느끼지 않는다.
 2) 나는 나이 들어 보이거나 매력 없이 보일까봐 걱정한다.
 3) 나는 내 모습이 매력 없게 변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다.
 4) 나는 내가 추하게 보인다고 믿는다.
15. 1) 나는 전처럼 일을 할 수 있다.
 2) 어떤 일을 시작하는 데에 전보다 더 많은 노력이 든다.
 3) 무슨 일이든 하려면 나 자신을 매우 심하게 채찍질해야만 한다.
 4) 나는 전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16. 1) 나는 평소처럼 잠을 잘 수 있다.
 2) 나는 전에 만큼 잠을 자지는 못한다.
 3) 나는 전보다 한두시간 일찍 깨고 다시 잠들기 어렵다.
 4) 나는 평소보다 몇시간이나 일찍 깨고, 한번 깨면 다시 잠들 수 없다.

17. 1) 나는 평소보다 더 피곤하지는 않다.
2) 나는 전보다 더 쉽게 피곤해진다.
3) 나는 무엇을 해도 피곤해진다.
4) 나는 너무나 피곤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18. 1) 내 식욕(입맛, 食欲)은 평소와 다름없다.
2) 나는 요즈음 전보다 식욕이 좋지 않다.
3) 나는 요즈음 식욕이 많이 떨어졌다.
4) 요즈음에는 전혀 식욕이 없다.
19. 1) 요즈음 체중이 별로 줄지 않았다.
2) 전보다 몸무게가 2Kg가량 줄었다.
3) 전보다 몸무게가 5Kg가량 줄었다.
4) 전보다 몸무게가 7Kg가량 줄었다.
20. 1) 나는 건강에 대해 전보다 더 염려하고 있지는 않다.
2) 나는 여러 가지 통증, 소화불량, 변비 등과 같은 신체적인 문제로 걱정하고 있다.
3) 나는 건강이 염려되어 다른 일은 생각하기 힘들다.
4) 나는 건강이 너무 염려되어 다른 일은 아무 것도 생각할 수 없다.
21. 1) 나는 요즈음 성에 대한 관심에 별다른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2) 나는 전보다 성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3) 나는 전보다 성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줄었다.
4) 나는 성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잃었다.

IV. 사회적 건강

다음은 귀하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난에 동그라미(○)표시를 해주십시오.

▶ 직원으로서의 역할

1. 지난 2주 동안 귀하는 직장에서 며칠 결근하셨습니까?
 - 1) 결근하지 않았다.
 - 2) 하루
 - 3) 절반 시간은 결근하였다.
 - 4) 절반 이상의 시간은 결근하였으나 적어도 하루 정도는 작업을 하였다.
 - 5) 단 하루도 작업하지 않았다.
 - 6) 2주 모두 휴가를 하였다.

2. 지난 2주 동안 귀하는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까?
 - 1) 내 작업을 잘 하였다.
 - 2) 내 작업을 잘 했지만 사소한 문제가 있었다.
 - 3) 작업을 함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했고 절반 시간은 잘 하지 못했다.
 - 4) 대부분 시간에 내 작업을 잘 하지 못했다.
 - 5) 항상 내 작업을 잘 하지 못했다.

3. 지난 2주 동안 귀하는 자신의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창피해 하셨습니까?
 - 1) 창피한 적 없다.
 - 2) 1~2번 정도 조금 창피를 느꼈었다.
 - 3) 약 절반시간은 창피를 느꼈었다.
 - 4) 대부분 시간에 창피를 느꼈었다.
 - 5) 항상 창피를 느꼈었다.

4. 지난 2주 동안 귀하는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언쟁(爭吵)을 한 적이 있으셨습니까?

- 1) 언쟁 없이 아주 잘 지냈다.
 - 2) 대개는 잘 지냈지만 사소한 언쟁은 있었다.
 - 3) 한 번 이상 언쟁을 했다.
 - 4) 언쟁을 한 경우가 많았다.
 - 5) 끊임없이 언쟁을 했다.
5. 지난 2주 동안 귀하는 작업하면서 화, 걱정,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으셨습니까?
- 1) 화를 느껴본 적 없다.
 - 2) 1~2번 정도 화를 느꼈었다.
 - 3) 절반시간은 화를 느꼈었다.
 - 4) 대부분 시간에 화를 느꼈었다.
 - 5) 항상 화를 느꼈었다.
6. 지난 2주 동안 귀하의 작업에 대해 얼마나 흥미를 느끼셨습니까?
- 1) 내 작업은 항상 흥미 있다.
 - 2) 내 작업은 1~2회 정도 흥미가 없었다.
 - 3) 내 작업의 절반 시간은 흥미가 없었다.
 - 4) 내 작업의 대부분 시간은 흥미가 없었다.
 - 5) 내 작업은 항상 흥미가 없었다.

▶ **여가활동**

7. 지난 2주 동안 귀하가 만나시거나 전화 통화를 하신 친구 분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 1) 9명 이상 2) 5 - 8명 3) 2 - 4명 4) 1명 5) 없다.
8. 지난 2주 동안 친구 분께 귀하의 감정상태와 고민에 대해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까?
- 1) 나는 항상 깊은 마음속 감정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 2) 나는 평소 내 감정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 3) 나는 두 번 중 한번씩은 내 감정들에 대해 말할 수 있다.
 - 4) 나는 평소에 내 감정들에 대해 말할 수 없었다.
 - 5) 나는 절대로 내 감정들에 대해 말할 수 없었다.
 - 6) 나는 친구가 없어서 해당사항 없다.
9. 지난 2주 동안 귀하는 몇 번이나 다른 분들과 함께 사회적 활동을 하셨습니까?(예를 들어 친구 분 방문, 영화보기, 외식, 운동, 종교행사 참여, 친구 분 초대 등)
- 1) 4번 이상 2) 3번 3) 2번 4)한번 5) 없다.
10. 지난 2주 동안 귀하는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 하셨습니까? (예: 운동, 독서, 바느질, 등산, 화초 가꾸기 등)
- 1) 거의 매일 대부분의 여가시간을 취미활동에 보낸다.
 - 2) 며칠에 한번씩은 여가시간을 취미활동에 보낸다.
 - 3) 취미활동에 약간의 시간을 보낸다.
 - 4) TV보는 것을 제외하고는 취미활동으로 보내는 시간이 별로 없었다.
 - 5) 여가시간에 취미활동을 한 적도 없고, TV를 본적도 없었다.
11. 지난 2주 동안 귀하는 친구들과 언쟁을 한 적이 있으셨습니까?
- 1) 언쟁 없이 아주 잘 지냈다.
 - 2) 대개는 잘 지냈지만 사소한 언쟁은 있었다.
 - 3) 한 번 이상 언쟁을 했다.
 - 4) 언쟁을 한 경우가 많았다.
 - 5) 끊임없이 언쟁을 했다.
 - 6) 나는 친구가 없어서 해당사항 없다.
12. 혹시 지난 2주 동안 귀하의 친구 분 때문에 감정이 상하셨던 적이 있으시다면 얼마나 심각하게 그것을 받아들이셨습니까?
- 1) 전혀 영향 받지 않았거나 친구 때문에 감정 상한 일이 없었다.
 - 2) 서너 시간 만에 극복했다.

- 3) 삼사일 만에 극복했다.
- 4) 1주일 안에 극복했다.
- 5) 회복하는데 여러 달 걸릴 것이다.
- 6) 나는 친구가 없어서 해당사항 없다.

13. 지난 2주 동안 귀하는 사람들과 지내는데 불편함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 1) 늘 편안했다.
- 2) 때때로 불편함을 느꼈지만 잠시 후 긴장을 풀 수 있었다.
- 3) 불편함을 느낀 경우가 반정도 된다.
- 4) 대체로 불편했다.
- 5) 항상 불편했다.
- 6) 나는 사람들과 함께 지낸 적이 없어서 해당사항 없다.

14. 지난 2주 동안 귀하는 외롭다고 느끼시거나 친구들이 더 있었으면 하고 바란 적이 있었습니까?

- 1) 외로움을 느낀 적이 없다.
- 2) 서너 번은 외로움을 느꼈다.
- 3) 외로움을 느꼈던 적이 반정도 된다.
- 4) 대부분의 경우 외로움을 느꼈다.
- 5) 항상 외로움을 느꼈고 좀 더 많은 친구들이 있었으면 하고 바랬다.

15. 지난 2주 동안 귀하는 여가시간에 지루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 1) 전혀 지루하지 않았다.
- 2) 평소에 지루하지 않았다.
- 3) 지루했던 경우가 반정도 된다.
- 4) 대부분의 시간에 지루했다.
- 5) 항상 지루했다.

다음은 귀하의 배우자로서의 역할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상황을 ()에 √ 표를 하여 주십시오.

- () 배우자(남편) 한국에 있음. 16~24번 문항을 응답하여 주십시오.
- () 배우자(남편) 중국이나 기타 국가에 있음. 16~21번 문항을 응답하여 주십시오.
- () 배우자(남편) 없음. 25번 문항으로 이동하여 주십시오.

▶ 배우자로서의 역할

16. 지난 2주 동안 귀하는 남편과 언쟁(爭吵)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 1) 언쟁 없이 아주 잘 지냈다.
 - 2) 대개는 잘 지냈지만 사소한 언쟁은 있었다.
 - 3) 한 번 이상 언쟁을 했다.
 - 4) 언쟁을 한 경우가 많았다.
 - 5) 끊임없이 언쟁을 했다.
17. 지난 2주 동안 귀하는 귀하의 감정상태와 고민에 대해 남편에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까?
- 1) 나는 항상 깊은 마음속 감정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 2) 나는 평소 내 감정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 3) 나는 두 번 중 한번씩은 내 감정들에 대해 말할 수 있다.
 - 4) 나는 평소에 내 감정들에 대해 말할 수 없었다.
 - 5) 나는 절대로 내 감정들에 대해 말할 수 없었다.
18. 지난 2주 동안 귀하는 가정에서 귀하의 뜻에 따를 것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까?
- 1) 나는 내 뜻에 따르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
 - 2) 나는 평소에 내 뜻에 따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 3) 두 번에 한번 정도는 내 뜻에 따르라고 주장했다.
 - 4) 나는 평소에 내 뜻에 따르라고 주장했다.
 - 5) 나는 항상 내 뜻에 따르라고 주장했다.

19. 최근 2주 동안 귀하의 남편이 귀하를 좌지우지 한 적이 있습니까?

- 1) 거의 없었다.
- 2) 어쩌다 한번씩 그랬다.
- 3) 두 번에 한번 정도는 그랬다.
- 4) 대부분 그랬다.
- 5) 항상 그랬다.

20. 최근 2주 동안 귀하는 남편에게 얼마나 많이 의존하고 있다고 느끼셨습니까?

- 1) 나는 독립적이었다.
- 2) 나는 대개 독립적이었다.
- 3) 나는 다소 의존적이었다.
- 4) 나는 대개 의존적이었다.
- 5) 나는 모든 것을 남편에게 의존했다.

21. 지난 2주 동안 귀하는 남편에 대해 어떻게 느꼈습니까?

- 1) 나는 항상 남편에게 애정을 느꼈다.
- 2) 나는 대부분 남편에게 애정을 느꼈다.
- 3) 애정을 느꼈던 경우가 반이고, 싫었던 경우가 반이다.
- 4) 나는 대부분 남편이 싫었다.
- 5) 나는 항상 남편이 싫었다.

22. 귀하는 남편(파트너)과 부부관계가 몇 번 있었습니까?

- 1) 한 주일에 2번 이상
- 2) 한 주일에 1~2번
- 3) 2주일에 한번
- 4) 2주일에 한번 정도는 되지 않으나 지난 달에는 적어도 한번 있었다.
- 5) 1개월 이상 없었다.

23. 지난 2주 동안 귀하는 부부관계를 할 때 통증과 같은 문제가 있으셨습니까?

- 1) 없었다
- 2) 1~2번 있었다.
- 3) 절반시간 정도는 있었다.
- 4) 대부분 시간은 있었다.
- 5) 항상 있었다.

24. 지난 2주 동안 부부관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나는 항상 즐겼다.
- 2) 나는 보통 그것을 즐겼다.
- 3) 절반 시간 정도는 즐겼고, 절반시간은 즐기지 못했다.
- 4) 나는 보통 그것을 즐겨하지 않았다.
- 5) 나는 그것을 즐긴 적이 없었다.

다음은 귀하의 부모로서의 역할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상황을 ()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

- () 자녀 있음. 25~28번 문항을 응답하여 주십시오.
() 자녀 없음. 29번 문항으로 이동하여 주십시오.

▶부모로서의 역할

25. 지난 2주 동안 귀하는 자녀들이 하고 있는 일(학교/직장생활, 놀이, 취미 등)에 관심을 가지신 적이 있었습니까?

- 1) 나는 항상 관심이 있었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 2) 나는 평소 관심이 있었고 참여했다.
- 3) 관심이 있었던 때와 없었던 때가 반반이다.
- 4) 나는 평소 관심이 없었다.
- 5) 나는 항상 관심이 없었다.

26. 지난 2주 동안 귀하의 자녀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만 2세 이상의 자녀 포함)

- 1) 나는 항상 자녀들과 의사소통 할 수 있었다.
- 2) 나는 평소 자녀들과 할 수 있었다.
- 3) 할 수 있었던 적이 반은 된다.
- 4) 나는 평소 할 수 없었다.
- 5) 나는 전혀 할 수 없었다.

27. 지난 2주 동안 귀하는 자녀들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 1) 언쟁 없이 아주 잘 지냈다.
- 2) 대개는 잘 지냈지만 사소한 언쟁은 있었다.
- 3) 한 번 이상 언쟁을 했다.
- 4) 언쟁을 한 경우가 많았다.
- 5) 끊임없이 언쟁을 했다.

28. 최근 2주 동안 귀하는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 1) 나는 항상 애정을 느꼈다.
- 2) 나는 대부분의 경우 애정을 느꼈다.
- 3) 애정을 느꼈던 적이 반은 된다.
- 4) 나는 대부분의 경우 애정을 못 느꼈다.
- 5) 나는 전혀 애정을 못 느꼈다.

▶가족단위의 구성원

29. 지난 2주 동안 귀하의 남편이나 자녀들에 대해 아무 이유 없이 걱정할 적이 있었습니까?

- 1) 아무 이유 없이 걱정할 적이 없다.
- 2) 한 두 번 걱정했다.
- 3) 하루에 반은 걱정하며 지냈다.
- 4) 늘 걱정했다.

- 5) 2주 내내 걱정했다.
- 6) 남편과 자녀가 없어서 해당사항이 없다.

30. 지난 2주 동안 귀하는 남편이나 자녀들을 언젠가 낙심시켰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까?

- 1) 나는 한번도 그들을 낙심시켰다고 느끼지 않았다.
- 2) 나는 평소에 그들을 낙심시켰다고 느끼지 않았다.
- 3) 두 번 중 한번 정도는 그들을 낙심시켰다고 느꼈다.
- 4) 나는 대부분 그들을 낙심시켰다고 느꼈다.
- 5) 나는 항상 그들을 낙심시켰다고 느꼈다.
- 6) 남편과 자녀가 없어서 해당사항이 없다.

31. 지난 2주 동안 남편이나 자녀들이 언젠가 귀하를 낙심시켰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까?

- 1) 나는 한번도 그들이 나를 낙심시켰다고 느끼지 않았다.
- 2) 나는 평소에 그들이 나를 낙심시켰다고 느끼지 않았다.
- 3) 두 번 중 한번 정도는 그들이 나를 낙심시켰다고 느꼈다.
- 4) 나는 대부분 그들이 나를 낙심시켰다고 느꼈다.
- 5) 나는 항상 그들이 나를 낙심시켰다고 느꼈다.
- 6) 남편과 자녀가 없어서 해당사항이 없다

▶ **경제적 상태**

32. 지난 2주 동안 귀하와 가족이 필요로 하는 만큼 충분히 돈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 1) 필요한 만큼의 돈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
- 2) 사소한 문제는 있었지만 나는 대개 돈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
- 3)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절반은 되었지만, 돈을 빌릴 필요는 없었다.
- 4) 평소 돈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야 했다.
- 5) 나는 돈에 대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Abstract

A Study on the Health Status among Middle-Aged Korean-Chinese Women Workers in Korea

Piao Zhenji

College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Lee, Insook, Ph.D., RN.

This is a descriptive research designed to examine the physical, mental, and social health status among the middle-aged Korean-Chinese women workers in Korea. The subjects were middle-aged Korean-Chinese women workers. The data was collected through a structured self-reported survey by visiting churches and worksites in Seoul and Gyeonggi areas from March 17, 2013 to April 21, 2013 after obtaining the subjects' consent for participation. Among 351 respondents of the survey, 77 cases who acquired Korean citizenship, illegal sojourners, those who did not answer some of the survey questions. And those who answered the same for all survey questions were excluded. Total of 274 survey outcomes were included in the final analysis of the study.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based on descriptive statistic, t-test, ANOVA, and Kruskal-Wallis test by using SPSS 20.0. The study

results are shown as follows.

- 1) The average number of diseases per person that are diagnosed by a physician was $0.7(\pm 1.0)$, and there were 108 people(39.4%) who were diagnosed with more than one disease. According to the detailed classification of disease made by International Statistical Classification of Diseases(ICD)-10, the frequently diagnosed diseases were listed as follows; Diseases of musculoskeletal and connective tissue, circulatory system, endocrine, nutrition and metabolic system, and digestive system. The prevalence of musculoskeletal symptoms was 69.3%, in the order of waist, leg/foot, neck, hand/wrist/finger, and arm/elbow. The physical health status was statistically and significantly poorer among the subjects who were older, stayed in Korea for 5~6 years, and worked as a caregiver.
- 2) 28.5% of the middle-aged Korean-Chinese women workers was shown to be depressed and among them, 19.7% suffered from mild-to-moderate depression while 6.2% of them were suffered from moderate-to-severe depression and rest of them(2.6%) were suffered from severe depression. The depression level was shown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ose of whom were older, had less education, engaged in longer daily service, received less monthly income, lived without a spouse, and worked as a caregiver or housekeeper.
- 3) The social health status was measured based on a 5-point scale and the average score was $1.75(\pm 0.35)$ points. It was considered to have a problem in terms of social health, in case of the social health score that was higher than the sum of the average scores(2.45points) derived among the total subjects and

twice of the standard deviation. According to the result, 3.3% of total subjects were classified to have social health problem. Those who had lower educational level and wanted to stay in Korea by extending their visa showed statistically and significantly poor social health.

- 4) The physical, mental, and social health status of the middle-aged Korean-Chinese women workers showed positive correlation, while depression level and social health status showed relatively strong correlation ($r=.52$, $p<.001$).

According to the result, the middle-aged Korean-Chinese women workers in Korea need to improve their physical and mental health status. Especially, those working as a caregiver and housekeeper had higher depression level. Since the ratio of such occupation is high among the middle-aged Korean-Chinese women workers in Korea,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depression intervention program that is appropriate for them. It is examined that physical, mental, and social health are related each other; thus, it will be more effective to develop and apply an intervention program in consideration of those three areas.

Keywords : Korean-Chinese, Health status, Middle-aged women,
Women workers.

Student Number : 2010-24029